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책임연구원 모상현

공동연구원 함세정



연구보고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책임연구원_ 모상현

공동연구원_ 함세정(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본 연구는 10대가 직접 당사자 관점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회적 지식을 만드는 청소년 참여 중심 인문사회연구 사업으로, 청소년 중심 정책환경에서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질적 모델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의제참여 및 권한 강화는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이며, 청소년 권한을 강화하고 청소년 중심 정책을 모색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세계에서 주목(미 UCLA YPAR Hub 등)받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이와같은 접근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기술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 연구는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한 청소년 미래역량을 증진하고 주체로서 청소년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유의미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0대 연구소는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되었으며, 사업 대상은 청소년연구원으로 만 15-19세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 15명이다. 청소년 연구원들은 청소년의 삶에 관한 연구주제를 찾아내고, 연구 방법을 습득한 뒤, 동료 청소년들에 대한 팀별 현장 조사를 진행,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 발표를 진행하였다. 2019년의 연구 주제는 총 3가지로 다음과 같다: 1) 불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 우리는 왜 학원을 계속 다닐까? 2)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 못할까?: 나는

자격이 없다. 3)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사라진 대화, 강요된 중립

참여 청소년들은 연구 활동을 통해 비판적·성찰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경청, 이해의 공존의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협력적 의사 결정 및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주도성을 증진하는 등 다양한 미래역량기술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0대 당사자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 결과와 기초자료 축적을 통해 비청소년 관점 중심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을 파악한 정책 대안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요약

1. 연구목적

- 정책 주체로서 청소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여 청소년 중심의 정책연구 개발 및 추진의 바탕을 마련
- 문제해결 및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에 중점을 둔 청소년 활동사업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청소년 역량강화중심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

2. 연구방법

- 참여형 활동사업 및 청소년 자기주도형 활동모델 개발을 위한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10대 연구소 운영지원

3. 주요결과

1) 10대 연구소 운영 구성 및 내용의 실제

- 본 사업은 총 4쿼터, 30회차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참여 연구 활동을 진행. 세부 내용으로는 자기주도 인문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연구 포럼 및 토론회 운영, 문제해결 중심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연구자 양성과정 운영, 청소년 참여 현장조사와 발표를 실행

2) 청소년 주도 연구 결과

- 주제1: 우리는 왜 학원을 계속 다닐까?- 불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
- 주제2: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사라진 대화, 강요된 중립

- 주제3: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 못할까?-나는 자격이 없다.

3) 사업 성과 및 청소년 평가

- 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비판적·성찰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경청, 이해의 공존의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협력적 의사 결정 및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주도성을 증진하는 등 다양한 미래역량기술을 함양할 수 있었음

4. 정책제언

- 미래사회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신의 삶을 사회적으로 의미화 하는 시간,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보급 필요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청소년 참여 연구를 담당, 운영 할 인력양성과정 운영 필요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연구보고

I. 서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사업 내용 및 방법 6

II. 10대 연구소 운영 내용 및 실제

1. 프로그램 운영 방식 및 주안점 17
2. 운영 내용 및 실제 21

III. 청소년 참여 연구결과

1. 우리는 왜 학원을 계속 다닐까? 87
2.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104
3.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 못할까? 126

IV. 사업성과 및 청소년 평가

- 1. 사업성과 분석 163
- 2. 청소년 평가 - 10대 연구소 1년을 돌아보며 171

V. 정책제언

-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187
- 2. 정책제언 188
- 3. 기대효과 189

참고문헌 193

부 록 197

Abstract 205

표 목차

표 I-1 10대 연구소 참가자 명단	6
표 I-2 청소년 연구주제 내용 개괄	7
표 I-3 2019 10대 연구소 일정 및 내용	11
표 II-1 1회차 계획안	21
표 II-2 2회차 계획안	27
표 II-3 3회차 계획안	30
표 II-4 4회차 계획안	34
표 II-5 5회차 계획안	37
표 II-6 6회차 계획안	40
표 II-7 7회차 계획안	43
표 II-8 8회차 계획안	46
표 II-9 9회차 계획안	50
표 II-10 11회차 계획안	52
표 II-11 12회차 계획안	54
표 II-12 13회차 계획안	56
표 II-13 14회차 계획안	58
표 II-14 15회차 계획안	60
표 II-15 16회차 계획안	62
표 II-16 17회차 계획안	64
표 II-17 18회차 계획안	66
표 II-18 19회차 계획안	69
표 II-19 20회차 계획안	71
표 II-20 21회차 계획안	73
표 II-21 22회차 계획안	75
표 II-22 23회차 계획안	77
표 II-23 24회차 계획안	79

표 II-24 25회차 계획안	81
표 II-25 26회차 계획안	83
표 III-1 연구 참가자 목록	88
표 III-2 심층면담 기간 및 참여자 개괄	106
표 III-3 온라인 설문 기간 및 참여자 개괄	107
표 III-4 심층면담 참여자 목록	107
표 III-5 학교 안 청소년이 공개적으로 페미니스트임이 밝혀졌을 때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있습니까?	110
표 III-6 심층면담 참여자 목록	127

그림 목차

그림 I-1 사업 협력 운영 체계	14
그림 III-1 학원을 다니고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나?	98
그림 III-2 ‘페미니스트 하면 떠오르는 것’ 에 대한 남녀 청소년의 워드클라우드	112
그림 III-3 친구와 싸우지 않는 방법	118

○———— 제1장 서 론

-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 사업 내용 및 방법
- 2.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중심 정책개발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심 아젠다이자, 국내 청소년 기본 계획에 근거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청소년 참여형 실행 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는 청소년들이 연구 대상이 아닌, 연구자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스스로 정의하고, 사회적 지식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의 주체성을 구현하는 한편, 청소년에 관해 보다 맥락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연구 방법이자 실행 방안이다(Hall, 1992).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권한 강화와 사회의 문제 해결을 동시에 모색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당사자 연구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확대되어 왔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남선·김만희, 2000; 남채봉, 2013, 김현경, 2015; 박가나, 2007).

본 사업은 당사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당사자 참여형 사회적 지식 생산 체계를 수립하여 청소년의 권한과 주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간 청소년에 대한 지식은 청소년 당사자와 분리되어 축적되어 온 경향이 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연령주의와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가가 연구 대상을 ‘통제’하고 ‘지식’을 분배하는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연구자-연구대상 구별과 권력 위계를 허무는 시도로서 청소년 참여형 연구는 10대를 연구자로, 그들의 활동을 ‘연구’로 명명함으로써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소년의 미래 지향적 역량 강화는 그 어느 때 보다는 중요해 지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기술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대두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8).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특정 직업에 적합한 지식 또는 기술보다는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문제 인지 능력과, 적극적 학습 능력을 포함한 콘텐츠 제작기술, 경청과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한 공정기술, 그리고 설득과 공감지능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이 가장 크게 주목 받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6). 청소년 참여형 연구는 연구 문제의 설정, 연구 방법 설계, 현장에서의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한 조사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적합한 방법임 본 연구는 청소년 참여형 연구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협력을 통해 혁신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형 연구는 10대들에게 자신들의 이슈를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연구로 풀어나가는 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의미화하고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사회과학적 지식으로 구성하는 경험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기보다는 거리두기와 가까이 보기의 방법을 익힌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활동을 통해 리더십, 비판적 사고, 쓰기 및 말하기, 의사 결정, 권익 옹호, 의사소통, 일정 관리, 회의 퍼실리테이션, 갈등 해결, 팀 워크, 연구 방법¹⁾ 등 다양한 삶의 기술을 함양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참여형 활동을 증진하고 참여형 연구라는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형 연구는 그 방법의 중요성과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모델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경쟁적 입시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환경과 청소년 사업의 시공간적,

1) Public Health Institute, Network for a Healthy California

물리적, 인적 조건을 감안 할 때 <10대 연구소 사업>의 실제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실행안 제안은 청소년 참여형 활동 분야에 상당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대 연구소는 당사자 참여형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 및 제언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선행연구는(Anyon & Naughton, 2003; Power & Tiffany, 2006) 당사자 참여형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교육과 트레이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전문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성인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된 조직과 재원이 필요하며, 이들을 ‘연구원’으로 존중하고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조직의 풍토 또한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 및 2018년 1기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본 사업은 10대 연구소의 확산을 목표로 하여 모델을 개발을 실시하여, 그 실행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이 실행한 당사자 참여형 연구는 10대 당사자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한 청소년 연구를 실행·추적하여 비청소년 관점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개발에 있어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또래 청소년들을 연구하는 과정은, 문제를 자신들만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문제로 파악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맥락을 만들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게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그 의미를 파악하여, 실제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사업 내용 및 방법

1) 사업 개요

- 사업명: 청소년 참여 10대 연구소 운영
- 사업 기간: 2019년 2월 16일~11월 30일
- 사업 대상: 만 15세-19세 청소년 15명

표 I-1 10대 연구소 참가자 명단²⁾

NO	성명	성별	나이	NO	성명	성별	나이
1	은별	여	19	9	유성	여	18
2	마루	남	19	10	양친구	여	18
3	줄리	여	19	11	늘보	여	18
4	삼색	여	18	12	시원	여	18
5	이경	여	18	13	다정	여	17
6	오리	여	18	14	루	여	17
7	진	여	18	15	미르	여	17
8	풍	남	18				

- 사업 내용: 9개월간 청소년들이 자신의 연구주제를 찾아내고, 연구 방법을 습득하여, 팀을 구성하고 현장 조사 진행, 자료 분석 및 발표 진행

2) 참가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익명으로 표기함

○ 사업 방법

- 청소년 연구 포럼 및 토론회 운영: 자기주도 인문사회적 역량 강화 및 주제 탐색 기회 제공
- 청소년 연구자 양성과정 운영: 문제 해결 중심 역량 강화 및 연구 도구 자원 제공
- 청소년 참여기반 현장조사, 자료 분석, 발표회 실시: 연구자로서 청소년 강화 및 정책 제안 장 마련

표 1-2 청소년 연구주제 내용 개괄

구분	1팀	2팀	3팀
연구 주제	◦불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 우리는 왜 학원을 계속 다닐까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 못할까: 나는 자격이 없다.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침묵의 교실, 기울어진 중립
활동 조건 및 연구 내용	• 팀별 작업과 개인 작업 병행 • 주제,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주중 및 주말 활동 • 인터뷰, 설문, 현장조사 참여 관찰 실행	• 팀별 작업과 개인 작업 병행 • 주제,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주중 및 주말 활동 • 인터뷰, 설문, 현장조사 참여 관찰 실행	• 팀별 작업과 개인 작업 병행 • 주제,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주중 및 주말 활동 • 인터뷰, 설문, 현장조사 참여 관찰 실행
	•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설문을 진행하여 학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실태와 비인간적 경쟁을 요구하는 억압적 교육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연구했다.	• 우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 형제, 교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느낌과 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사회의 반응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 10대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및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정체화한 청소년들이 교실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담, 설문을 진행했다.

2) 사업 내용

10대 연구소의 사업은 총 4쿼터로 구성된다. 1쿼터는 자기주도적 인문사회 역량 강화 및 연구주제 탐색, 2쿼터는 청소년 연구자 양성과정 운영, 3쿼터는 현장 조사 실시, 4쿼터는 분석 및 발표를 통한 확산이다. 아래는 각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1) 자기주도적 인문사회 역량 강화 및 연구주제 탐색

1쿼터는 총 4주로 구성되며, 연구의 사전 단계이자 10대 연구소 운영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청소년 연구원으로서 정체성을 구성하고,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자신이 관심있는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인문사회 역량의 강화이다.

청소년 당사자 연구라는 다소 낯설고 전문적인 영역의 활동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연구원으로 이해하고, 동료들과 함께 연구를 하는 활동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는 향후 지속되는 높은 수준의 과업을 직접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밑바탕으로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활동을 주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대 연구소에서는 2018년 참가했던 1기들의 연구 포럼을 개최하여 ‘선임’ 연구자들과 만나 그들의 연구 결과를 접하며 연구한다는 것에 대한 청소년 나름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1기 청소년들의 포럼 운영은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연구에 대하여 청소년 화자가 직접 청소년 청자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0대 연구소가 비청소년 연구자가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연구’에 대해 모호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전 년도

케이스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청소년 연구 포럼과 동시에 해당 분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 주제 토론회이다. 10대의 불만, 10대의 불안, 10대의 젠더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발화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향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동료 청소년들과 해당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험은 고립을 벗어나 연대하고 공감하는 장을 열게 하는 한편, 연구팀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동료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연구 포럼과 토론회를 거쳐 청소년들은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좁혀나간다.

(2) 연구자 양성과정 특강 및 실습

2쿼터는 본격적인 연구 실행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목표는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과정을 설계하고 연구방법을 학습하는 청소년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연구의 도구 및 방법에 대한 강좌와 실습을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자원이다. 연구 방법 실습에 앞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연구 주제이다. 1쿼터를 통해 탐색된 연구주제를 다회의 투표 및 토론을 거쳐 총 3개-4개의 주제로 결정한 후, 청소년들의 의견 수합 및 토론을 거쳐 연구팀을 최종 결정한다.

10대 연구소는 질적 연구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도구를 실습한다. 청소년 당사자 연구의 경우 그들의 세계를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기존의 연구 환경에서 충분히 들리지 않은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만큼, 참여관찰, 심층면담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은 청소년 참여 연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청소년 연구자가 청소년 정보제공자를 만나 수집하는 데이터는 청소년 연구자라는 위치성에서 얻을 수 있는 타당도와 깊이를 제공할 것이다.

해당 단계에서는 참여관찰, 심층면담, 설문에 대한 특강을 듣고, 자신들의 연구 주제에 맞추어 팀과 함께 실습한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인터뷰 질문들을 구성한 이후, 직접 예비인터뷰를 다회 실행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개선점을 토론하고 전체적인 연구질문과 내용을 다듬는다. 필요한 설문조사도 필요한 경우 진행하며, 이 또한 여러 차례의 실습과 시범 운영을 거쳐 수정한다. 해당 과정에서 연구 설계도를 지속적으로 수정한다.

(3) 현장조사 진행

3쿼터는 현장조사 실행의 단계다. 이 단계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각자 설계한 연구 주제 및 방법을 직접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청소년 연구원들은 정보 제공자를 직접 선정, 섭외하고, 인터뷰를 실행하고, 녹음한 기록을 전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참여관찰의 경우 참여관찰 노트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설문지는 선정된 대상에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하여 배포한다.

질적 연구의 단계에서 현장조사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연구 도구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한편, 연구결과에 대해 1차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연구원들은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매주 연구 모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 등 연구 도구를 수정한다.

(4) 데이터 분석 및 발표

4쿼터는 수집한 데이터의 의미를 만드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 및 분석하고, 각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여 연구의 결과

를 도출하는 것이다. 해당 과정은 공동으로 진행된다.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함께 읽으며 자료를 코딩하고, 유목화,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분석 과정에서 서로 도움으로서 과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연구결과의 도출은 자료들을 교차 분석하고, 해당 분석결과를 유목화하고 범주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점이나, 새롭게 발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진행한다. 분석, 결과 도출, 발표 자료 구성 단계는 모두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팀워크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과업 수행 과정을 체크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는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PPT, 포스터 형태의 발표자료를 만들어 진행하고, 발표를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표 I-3 2019 10대 연구소 일정 및 내용

회차	일시	영역	주요 내용
1	2/16		오리엔테이션: 상호 소개, 공동의 약속 만들기
2	2/23	1쿼터	10대의 연구 포럼 1 토론회: 10대의 불안은 무엇인가
3	3/2	기반다지기, 인문 사회적 역량 개발	10대의 연구 포럼 2 토론회: 10대 여성/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4	3/9		10대의 연구 포럼 3 토론회: 10대의 불만은 무엇인가 연구주제 탐색
5	3/23	2쿼터	방법 특강 1: 인터뷰 방법 익히기
6	3/30	윤곽 잡기 연구방법 특강 및	방법 특강 2: 설문 의 기초
7	4/6	실습	방법 특강 3: 참여 관찰 방법

8	4/13		방법 특강 4: 연구 주제 공동 탐구
9	5/4		연구 실행 설계도 작성
10	5/11		현장조사 시작, 자체 연구 진행
11	5/18		연구 방법과 도구 재검토
12	5/25	3쿼터	연구 현황 검토1
13	6/1	프로젝트 실행, 현장조사 실시	연구 현황 검토2 (질문 수정, 연구참여자 검토)
14	6/8		연구 현황 검토3 (인터뷰 전사)
15	6/15		연구 현황 검토5 (내용 나누기, 함께 분석하기)
16	6/22		연구 현황 검토 6
17	7/13		자료 확인 및 정리법 특강
18	7/20		자료 분석법 특강: 유목화, 범주화, 패턴파악, 코딩
19	7/27		1박 2일 워크숍
20	8/3	4쿼터	공동의 분석- 녹취 자료 다함께 읽으며 해석하기
21	8/10	분석, 결과발표, 논문작성	분석 3- 코드 뽑기 1차 완료, 코드 지도 그리기
22	8/17		분석 4- 데이터 정리, 연구 결과 개요 1차 완료
23	8/24		분석 5- 연구 발표문 1차 완료, 다함께 검토
24	8/31		분석 6- 연구 발표문 2차 수정, PPT 제작

25	9/6	발표문 작성, 발표 리허설
26	9/7	최종 발표회 실행
27	9/21	논문작성 1
28	10/5	논문작성 2
29	10/19	논문작성 3
30	10/26	서울시 청소년 희망 엑스포 참가, 연구 결과 공유
31	11/16	논문작성 4, 마무리 모임

3)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은 연구원과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이하 하자센터)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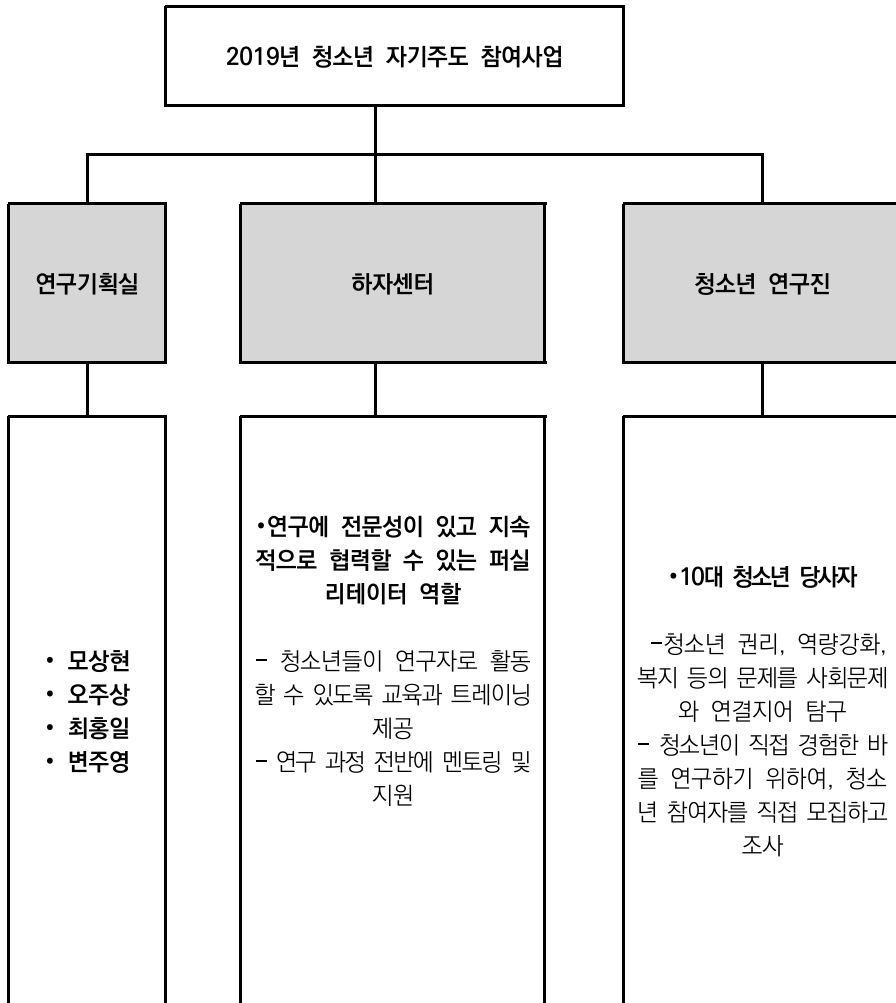


그림 I-1 사업 협력 운영 체계

○ — 제2장 10대 연구소 실행 과정 및 운영 실제

- 1. 프로그램 운영 방식 및 주안점
- 2. 운영 내용 및 실제

1. 프로그램 운영 방식 및 주안점

1) 청소년 당사자 중심 문화조성

(1) 평등한 활동 환경 조성

청소년 참여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연구원으로 존중하는 평등한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10대 연구소에서는 직책이나 직급이 아닌 본인이 선택한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고, 나이와 학력 등을 공개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도를 하여 청소년과 비청소년 간, 그리고 청소년들 간의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2) 안전한 공간 만들기

10대 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풍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과 성향을 드러내더라도 즉각적으로 비난 당하거나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10대 연구소에서

는 사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커뮤니티 약속을 정하고, 의견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연습을 했다.

한편, 안전한 공간의 유지는 연구자 본인과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 윤리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구 인터뷰 자료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항의 보안 중요성을 충분히 공지하여 연구원들 사이 신뢰형성과 안전한 장소구성이 중요하다.

2) 연구 과정 지원

(1) 연구 자원 공유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와 관련된 개념,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의 자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자체에 대한 과정 뿐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는 틀을 학습하기 위하여 기본적 사회과학에 대한 짧은 강의 및 조언을 제공하는 일은 청소년 연구자들의 연구를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구 과정의 지원에는 토론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활성화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연구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과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는 한편, 비청소년 조력자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이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도록 조력해야 한다. 이때, 개인적 질의응답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연구에 대한 공통된 질문이나 연구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 공론화 할 수 있는 이슈는 함께 공유하여 모두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면 또한 중요하다.

(2) 실습 위주의 연구방법 특강

본격적으로 인터뷰나 참여관찰, 설문지조사에 들어가기 전 연구원 내에서 이를 실습하고, 수정, 재구성하는 것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연구 방법의 경우, 강의가 아무리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원 동료들 사이에서, 또 해당 기관 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사전 연습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일정조정 및 관리

연구 과정을 진행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는 전체 일정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시기마다 달성할 과업을 인지하여 적절이 조절하는 것은 반드시 조력자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이다.

연구원들의 학사일정 및 개인 일정을 확인하여 전체 일정을 설계하고, 10대 연구원들에게 전체공지, 개별카톡 등을 통해 모임일정, 참석 여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를 연결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시간 리뷰, 연구 진행 경과를 체크하는 등 페이스 메이커로서 연구와 관련된 일정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커리큘럼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해진 일정과 목표에 집중하여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 진행 상황과 청소년들의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연구일정과 모임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자재 및 기술 지원

(1) 충분한 공간, 장비 자원 제공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1로 인터뷰 할 공간, 그룹별로 실습하고 토론할 공간, 그리고 다 함께 전체 토론 등을 진행할 공간이 필요하다. 각 팀이 연구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그룹 활동 공간은 필수적이다.

공간과 함께 기자재 역시 연구 진행에 중요하다. 노트북, 녹음기, 원활한 인터넷 사용 등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와 환경은 단시간 내에 연구를 진행하는데 핵심적으로 기능한다.

(2) 공유 문서 활용 및 자료관리

팀별로 연구 자료를 관리하고, 초기 분석, 연구 결과와 발표자료 작성 등을 위해서는 구글닥 등 공유문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의견을 취합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분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파일 작성은 다양한 버전과 파일 수로 인하여 혼선을 빚을 수 있다.

2. 운영 내용 및 실제

아래는 전체 회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수록한 프로그램 계획안이다. 각 회차는 해당 회차의 목표와 주요 내용, 그리고 준비 물품과 고려사항 등을 표기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각 회차의 주요 안을 표기한 표와 더불어, 해당 회차에서 사용한 진행 슬라이드를 수록하여, 해당 회차의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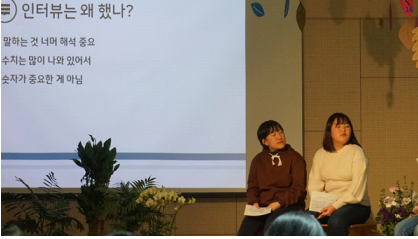
1) 각 회차 계획안

표 II-1 1회차 계획안

주차	1	일시	2019. 02. 16 (13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10대 연구소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공유 - 구성원 간의 이해와 연대 도모 - 향후 연구소 운영 원칙-약속 수립 - 하자센터 이해 및 소속감 제고				
구성	사전 - 함께 비빔밥 1부 - 서로 알아보기(하자 알아보기, 10대 연구소 알아보기, 연구원 알아보기) 2부 - 안전한 연구 커뮤니티를 위한 약속 만들기 3부 - 10대 연구소 1년 계획 및 활동 소개 4부 - 다음 주 안내				
준비물	쌀, 맛살, 샐러드믹스, 계란, 명찰 라벨지, 대형포스트잇, 스티커, 펜, ppt, 간식: 떡, 감자칩, 빵, 음료(핫초코, 아이스티, 동글레), 포트, 컵 20개, 냅킨, 마커, 종이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웰컴(비빔밥 점심) 2. 오늘의 계획 공유				이름 라벨지 PPT

	3. 1부- 서로 알아보기 오늘 온 사람들 알아보기: 하자 이름, 이름 의미, 내가 10대 연구소에 기대하는 것 소개 10대 연구소 알아보기: 1기 청소년들의 이야기 & 테마 설명 '왜' 팀 나뉘(성향 질문 5개) 인사, 팀 4-5명씩 4개로 나누기 여기 온 사람에게 궁금한 것 질문 만들기: 팀 토론, 질문타이핑 1:1로 인터뷰하기 - 다른 팀 중 1명 뽑아서	전지, 마커, 포스트잇 뽑기용 종이
현지조사	4. 2부- 하자 알아보기: 하자 알기 팀 미션 팀 미션지 빈칸을 채우자(총 4종류의 팀 미션지를 들고 다니며 하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예정)	팀 미션지 4개 펜 8개
커뮤니티 활동	5. 3부- 안전한 커뮤니티를 위한 약속 정하기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왜 중요할까? *아웃팅의 위험 설명 안전한 연구 커뮤니티를 위해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 하자의 약속 우리말로 바꾸기 추가로 하고 싶은 약속 *결석 6. 다음 주 소개 & 출석 요정 정하기 다음 주: 10대 연구 포럼 1차, 키워드 클라우드, 원인연쇄분석 출석 요정 하실 분?	전지 마커
마무리	7.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10대연구소 어서와요 2기 연구원 여러분 10대연구소	2 오늘의 계획 1부 서로 알아보기: 해치지 않아요 2부 하자 알아보기: 하자알기 팀 미션 3부 안전한 연구 커뮤니티를 위한 약속 정하기 - 다음주 소개 & 출석 요정 정하기 10대연구소
---	--

 ③ 인터뷰는 왜 했나? 말하는 것 너의 해석 중요 주지는 말이나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님	
10대 연구소를 알려다오 ◇ 판돌 사용 설명 By 1기 연구원 1기 연구소	10대 연구소를 알려다오 ◇ 1년의 일정은? 일정표를 봐주세요 1기 연구소
쉬는 시간! 1기 연구소	알아가기 ◇ 연구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왜 중요한가 맥락을 알 때 더 타당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나를 알아주는 안전한 곳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온다. 1기 연구소
인사 합시다. ◇ 인사 합시다. 1기 연구소	인사 합시다. ◇ 낮 가리는 성격입니다 VS. 낮선사람? 뭐 괜찮음 1기 연구소
인사 합시다. ◇ 깡잎? 으으 VS. 깡잎? 괜찮은데 1기 연구소	인사 합시다. ◇ 그래도 겨울이 낮다 VS. 그래도 여름이 낮다 1기 연구소

◇ ▽ 인사 합니다. 머리만 닿으면 잔다. VS. 자는 데 1시간 이상 걸린다. 1(→)태원연구소	◇ ▽ 팀 별 미션 진행 ○ 하자 탐험 미션! ○ 하자를 아는 것은 왜 필요할까? ○ 4개의 팀, 4개의 미션! 1(→)태원연구소
◇ ▽ 인사하기, 팁 & 매너 1) 간단 자기 소개 2) 방문 목적 알리기 3) 알해 구하기 4) 질문 5) 감사 인사 예) 안녕하세요. 들어가요도 일까요? 저는 하자센터 10대 연구소 2기 000입니다. 하자를 알아가는 먼저 초사를 위해 몇 가지 여해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종료 후)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태원연구소	◇ ▽ 결과 공유! 1(→)태원연구소
◇ ▽ 쉬는 시간 1(→)태원연구소	◇ ▽ 조별 활동: 10대의 10대에 대한 질문 리스트 뽑기 ○ 열 사람 연구하기 ○ 여기 온 사람들에게 내가 궁금한 것 ○ 또래 10대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 ⇒ 조별 토론으로 나온 질문을 타이핑 하자. 1(→)태원연구소
◇ ▽ 팀별 연구결과 공유 ○ 무엇을 묻고 무엇을 이야기했나 ○ 어떤 생각이 들었나 ○ 연구 결과 공유 1(→)태원연구소	◇ ▽ 연구원들 알아보기 ○ 차이점 : 다양한 사람들 -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다. ○ 공통점 : 진지한 사람들 - 이곳을 안전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 ○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존중 1(→)태원연구소
◇ ▽ 우리의 약속 ○ 안전한 연구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지킬 약속 ○ 하자의 약속+1기의 약속, 한 번 뿐까? 그 전에, 이웃들의 위험에 관하여 1(→)태원연구소	◇ ▽ 하자에서 지켜야 하는 일곱 가지 약속 : 권리와 의무 1.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도 할 거다 2. 나야차법, 성차법, 학력차법, 지역차법 안 한다 3. 어떤 종류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을 거다 4. 내 뒤지다짜라는 내가 할 거다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5. 정보 때문에 지사해지지 않을 거다 / 정보와 자원은 공유한다 6. 입장 바꿔 생각할 거다 / 배려와 친절 7. 약속은 지킬 거다 / 못 지킬 약속은 안 할 거다 8. 나이, 학교 배교 사립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거다. 1(→)태원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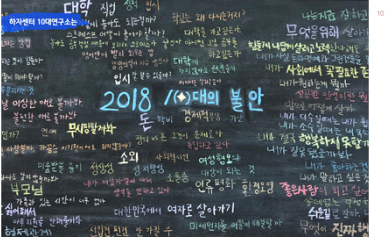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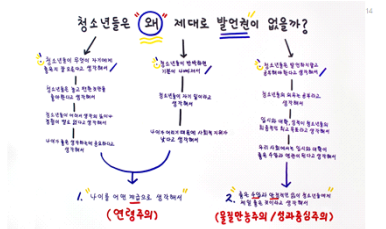
● ◇ ▽ 43 우리의 약속 ➢ 추가하고 싶은 것 / 빼고 싶은 것 / 열 사람과 이야기해보자 ➢ 그래서 정해진 우리의 약속 11<>대연구소	● ◇ ▽ 44 다음주 예고 ➢ 10대 연구 포럼1. 임시예 권하여 & 1기와 대화 :연구 Q&A (60분) ➢ 주제 키워드 클라우드 (40분) ➢ 주제별 원인 연체 분석 플랫폼 토론 (40분) ➢ 세상과 임시 문제 연결 짓기 (40분) 11<>대연구소
● ◇ ▽ 45 10대 연구소 오픈카톡 : 2019 10대 연구소 2기 로 검색 11<>대연구소	● ◇ ▽ 46 오늘 소감 나누기: 돌아가며 말하기 11<>대연구소

표 II-2 2회차 계획안

주차	2	일시	2019. 02. 23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기반다지기 인문·사회적 역량개발				
구성	오프닝- 다들 잘 살고 계신가요? 1부 - 10대 연구 포럼: 입시와 청소년 자기착취 연구팀 발표 2부 - 토론회: 10대의 불안과 두려움 3부 - 특강: 사실은 이게 사회문제더라고 4부-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포스트잇, 전지, 마커,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바나나, 샌드위치, 떡, 과자, 빵, 음료(핫초코,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1부 서로 알아보기 나의 오늘 상태 1-10 ? 30초간 마주보기 경청의 중요성: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 본 경험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역량개발 활동	2. 10대 연구포럼 입시와 청소년의 자기착취: “맨날 하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3. 토론회 - 10대, 나의 두려움은? - 10대, 나의 불안은? 팀별 연구결과공유: 무엇을 묻고, 무엇을 이야기했나? 집중 이야기: 원인연쇄분석, 당연한 것에 ‘왜’를 묻고, 한번 더 판 다. 4. 특강- 알고보니 이게 사회문제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 내 문제를 사회적 시각에서 이해하기 - 특강: 입시, 노력, 개인 신자유주의와 교육문제	
커뮤니티 활동	6. 5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7.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2회차 	2  오늘의 계획 ▷ 오프닝- 다들 잘 살고 계신가요? ▷ 1부 -10대 연구 포럼: 입시와 청소년 자기각취 ▷ 2부 -키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10대의 불안과 두려움 ▷ 3부 -집중 이야기 나누기 -원인연쇄분석 ▷ 4부 -사실은 이게 사회문제더라고 다음주 소개 & 정리 
3  서로 알기 나의 오늘 상태 1-10? 	4  서로 알기 30초간 마주보기 
5  서로 알기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 본 경험 	6  연구원들 알아보니 ▷ 차이점: 다양한 사람들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다. ▷ 공통점: 전지한 사람들 -어곳은 안전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 ▷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존중 

○ ◇ ▽ 서로 알기 일단, 듣긴 듣자 무시하지는 말자 나와 경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11(→)대연구소	○ ◇ ▽ 10대 연구 포럼 임시와 청소년의 자기 착취: "맨날 하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11(→)대연구소
○ ◇ ▽ 키워드 클라우드 내 생각을 쏟아내보자 11(→)대연구소	○ ◇ ▽  11(→)대연구소
○ ◇ ▽ 키워드 클라우드 10대의, 나의 두려움은? 10대의, 나의 불안은? 11(→)대연구소	○ ◇ ▽ 팀별 연구결과 공유 ○ 무엇을 묻고 무엇을 이야기했나 ○ 어떤 생각이 들었나 ○ 연구 결과 공유 11(→)대연구소
○ ◇ ▽ 집중 이야기-원인연쇄분석 당연한 것에 '왜'를 묻고 한 번 더 판다 11(→)대연구소	○ ◇ ▽  11(→)대연구소
○ ◇ ▽ 팀별 연구결과 공유 ○ 무엇을 묻고 무엇을 이야기했나 ○ 어떤 생각이 들었나 ○ 연구 결과 공유 11(→)대연구소	○ ◇ ▽ 특강- 알고 보니 이게 사회문제 임시, 노력, 개인 신자유주의와 교육 문제 11(→)대연구소

◇ ▽ 다음주 예고 17 ▷ 10대 연구 포럼1.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 (60분) ▷ 주제 키워드 클라우드 (40분): 나의 성별에 나답게 사는 것을 가로막은 경험은? ▷ 함께 보면 좋은 영상 ▷ 주제별 원인 연세 분석 골강 토론 (40분) ▷ 특강-세상과 젠더/퀴어 문제 연결 짓기 (40분) 11<>대연구소	◇ ▽ 오늘 소감 나누기: 돌아가며 말하기 46 11<>대연구소
--	---

표 II-3 3회차 계획안

주차	3	일시	2019. 03. 02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기반다지기 인문·사회적 역량개발				
구성	오프닝- 우리 아직 서로를 더 알아야 한다. 1부 - 지난주 주제 리뷰 2부 - 10대 연구 포럼: 혼란이 나를 더 알게 한다. 10대 성소수자 청소년 연구팀 발표 3부 - 토론회: 10대 여성, 남성, 젠더퀴어로서 '나' 4부 - 특강: 사실은 이게 사회문제더라고, 젠더에 관하여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포스트잇, 전지, 마커,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떡, 과자, 쿡, 빵, 음료(커피, 핫초코, 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오프닝 - 서로 알기: 3가지 힌트를 가지고 연구원 찾기(각 팀에서 함께 추리 질문시간 5분별도 제공) - 30초간 마주보기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역량개발 활동	2. 지난주 주제리뷰 및 토론 - 입시를 향한 개인의 노력과 성공, 조건과 운에 대한 이야기 - 모두가 가치있는 존재라는 것				ppt 전지 마커,

	- 당연한 것은 당연한가? - 지난주 주제에 대해 공감하는가?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3. 10대 연구 포럼: 혼란이 나를 더 알게 한다. 10대 성소수자 청소년 연구팀 발표 청소년 성소수자 비가시화 문제 4. 토론회 - 10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10대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 10대 젠더퀴어로 산다는 것은? 팀별 연구결과공유: 무엇을 묻고, 무엇을 이야기했나? 집중 이야기: 원인연쇄분석, 당연한 것에 '왜'를 묻고, 한번 더 판다. 5. 젠더 문제 이해하기 특강 사회적 시각에서 내 문제 이해하기 특강: 젠더에 관하여	포스트잇
커뮤니티 활동	7.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 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8.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0대연구소 3회차 10대연구소	오자마자 나에 대한 3가지 사실 써놓기 (ex. 나는 만화책을 모른다. 100미터를 16초대에 뛸 수 있다. 고수를 먹을 수 있다.) 10대연구소

○ ◇ ▽ 오늘의 계획 ○ 오프닝-우린 아직 서로를 더 알아야 한다네 ○ 1부-지난주 주제 토론 ○ 2부-꿈중 이야기 나누기-10대 여성, 남성, 젠더퀴어로서 나 ○ 3부-10대 연구 포럼-혼란이 나를 더 알게 한다: 청소년성소수자 ○ 4부-사실은 이게 사회문제더라고 (특강! 젠더에 관하여) ○ 다음주 소개 & 정리 11(○)대연구소	○ ◇ ▽ 잠깐만! 나와 학교 물어보지 말라 나에 대해 아무 정보도 알려주지 말라는 아님! 가정하고 판단하지 말자, 그러나 나에 대해선 맘껏 말해도 됩니다. ☺ 11(○)대연구소
○ ◇ ▽ 서로 알기 3가지 힌트, 이 사람은 누구일까? -각 팀에서 함께 추리 -질문 시간 5분 별도 제공 11(○)대연구소	○ ◇ ▽ 서로 알기 30초간 마주보기 11(○)대연구소
○ ◇ ▽ 지난 주 어땠나 공감 중요 그러나 다른 생각 더 중요! 다들 때만 배울 수 있다. 11(○)대연구소	○ ◇ ▽ 지난 주 주제 리뷰 ○ 일서를 향한 개인의 노력과 성공, 조건과 운에 대한 이야기 ○ 사실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주장하려는 게 의도 ○ 때로 우린 자신이 잘 낚을 때만 나를 인정할 때도 있다. ○ 당연한 건 당연한가? 11(○)대연구소
○ ◇ ▽ 지난 주 주제 토론 ○ 나는 공감되었다. / 좀 어딘 정도 있었다. ○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 나는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11(○)대연구소	○ ◇ ▽ 10대 연구 포럼 2 혼란이 나를 더 알게 한다 : 청소년 성소수자 비가시화 문제 11(○)대연구소
○ ◇ ▽ 정체성에 관하여 00는 000하다 남자는 여자는 퀴어는 인간은 11(○)대연구소	○ ◇ ▽ 토론/ 키워드 클라우드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나의 생물학적/사회적 성이 가로막은 경험은? 11(○)대연구소

● ◇ ▽ 토론/ 키워드 클라우드 10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10대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10대 젠더퀴어로 산다는 것은? 11(☆)대원구소	● ◇ ▽ 영감을 주기 위한 영상들 여자답다는 것 우리가 쓰고 사는 가면 - 남성성 11(☆)대원구소
● ◇ ▽ 어땠나요? 어떤 느낌? 어떤 새로운 생각? 의문점? 11(☆)대원구소	● ◇ ▽ 팀별 연구결과 공유 - 무엇을 묻고 무엇을 이야기했나 - 어떤 생각이 들었나 - 연구 결과 공유 11(☆)대원구소
● ◇ ▽ 집중 이야기-원인연쇄분석 당연한 것에 '왜'를 묻고 한 번 더 판단 11(☆)대원구소	● ◇ ▽ 특강- 알고 보니 이게 사회문제 당연한 것은 당연할까? - 젠더 규범과 차별 11(☆)대원구소
● ◇ ▽ 마무리 토론 - 어떤 생각, 저런 생각, 무슨 생각? - 공감이 되는데? 이 저런 좀 이상한데? - 이야기 나눠보자 11(☆)대원구소	● ◇ ▽ 다음주 예고 - 연구란 대체 어떤 모양인가? 뭐가 필요한가 feat. 판들의 연구(60분) - 주제 키워드 클라우드 (40분): 10대의 불만, 분노! - 함께 보면 좋은 영상 - 주제별 원인 연쇄 분석 골강 토론 (40분) - 마무리 토론 (40분) 11(☆)대원구소
● ◇ ▽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1(☆)대원구소	

표 II-4 4회차 계획안

주차	4	일시	2019. 03. 07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기반다지기 인문·사회적 역량개발				
구성	오프닝 - 서로 알아보기 1부 - 지난주 & 이번주 리뷰 2부 - 토론회: 10대의 불만연구에는 뭐가 필요한가? 3부 - 내 연구주제 탐색하기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포스트잇, 전지, 마커,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떡, 감자칩, 빵, 음료(핫초코, 아이스티, 동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서로 알아보기 3가지 힌트, 이 사람은 누구일까?(각 팀에서 함께 추리, 질문시간 90초별도 제공)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역량개발 활동	2. 지난주 주제 리뷰 및 토론 첫 번째 만남: 10대가 10대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가? 두 번째 만남: 10대의 불안, 두려움은 무엇인가? 세 번째 만남: 10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10대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10대 젠더퀴어로 산다는 것은? 3. 토론회 - 10대의 불만: “이건 아니지”, “이건 왜 이럴까 대체” - 팀별 연구결과 공유: 무엇을 묻고, 이야기했나? - 원인연쇄분석: 당연한 것에 “왜”를 묻고 한 번 더 판다. - 연구 하려면 어떻게 필요할까?: 판돌의 연구결과로 배우기 4. 연구 주제 탐색 내 연구주제 생각하기: 어떤 연구주제로 연구할까?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커뮤니티 활동	5.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	-----------------	--

1 10대연구소 4주차 10대연구소	2 시작 리뷰 지난 주 어땠나요? 10대연구소
3 오늘의 계획 1부 - 지난주 & 이번주 리뷰 2부 - 검증 이야기 나누기 3부 - 10대의 불만연구에는 뭐가 필요한가 4부 - 내 연구주제 점검하기 - 다음주 소개 & 정리 10대연구소	4 오자 마자 나에 대한 3가지 TMI (ex. 나는 부산에서 왔다. 100미터를 16초대에 걸 수 있다. 고수를 먹을 수 있다.) 10대연구소
5 서로 알기 3가지 힌트, 이 사람은 누구일까? - 각 팀에서 함께 추리 - 질문 시간 90초 별도 제공 10대연구소	6 그동안 우리의 이야기 리뷰 요약해보자면 10대연구소
7 지난시간 돌아보기 첫 번째 만남: 10대가 10대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가? -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 다음 할 일과 계획이 있는가? - 청소년기에 대해 어떤 생각? - 10대 청소년에게 대한 생각 - 학사명과 취미가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차이는? - 같이 할까? - 질문을 하고 싶었? 10대연구소	8 지난시간 돌아보기 두 번째 만남: 10대의 불만, 두려움은 무엇인가? - 입시(대학)만 해도 / 입시준비를 언제부터 할까? 어떤이 할 수 있을까? - 인간관계 / 시간 / 학업(과외) 비교 / 친구들에게 소위(학업) 비교, 사회에서 나한테 얼마가 생각되는 것 없이 - 나의 생각 /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 - 독립할 수 있는 법(지침)이 뭐? - 폭력, 자살, 학교에 대해서는 법은? - 수험/수험생 부정 - 돈이 없어서 /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 고용 안전에 대한 고민 10대연구소

● ◇ ▽ 지난시간 돌아보기 9 세번째 만남: 10대 이상으로 신다는 것은/10대 남성으로 신다는 것은/ 10대 첼리로 신다는 것은? - 나를 왜 여기까지 하고 했? - 숨겨왔던 것은 무엇? -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 '여러사람의' 무엇이 있었? - 내가 나로서 좋아하는 것을 해줘서 그만이 좋아하라는 말 10대 연구소 10	● ◇ ▽ 토론/ 키워드 클라우드 10 10대의 불만 “이건 아니지” “이건 왜 이럴까 대체” 10대 연구소 10
● ◇ ▽ 팀별 연구결과 공유 111 ▣ 무엇을 묻고 무엇을 이야기했나 ▣ 어떤 생각이 들었나 ▣ 연구 결과 공유 10대 연구소 11	● ◇ ▽ 집중 이야기-원인연쇄분석 122 당연한 것에 '왜'를 묻고 한 번 더 판다 10대 연구소 11
● ◇ ▽ 슬슬 연구 생각 133 연구 하려면 어떻게 필요할까? - 판독의 연구로 배워보기 10대 연구소 12	● ◇ ▽ 10대 연구 포럼 3 144 연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10대 연구소 12
● ◇ ▽ 움짤 움짤-떠들떠들 155 내 연구주제를 슬그머니 짐작 해봤다 10대 연구소 13	● ◇ ▽ 마무리 토론 166 ▣ 어떤 생각, 저런 생각, 무슨 생각? ▣ 공감어 되는데? 어 저건 좀 이상한데? ▣ 이야기 나눠보자 10대 연구소 13
● ◇ ▽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7 10대 연구소 14	● ◇ ▽ 다음주 예고 188 ▣ 연구 방법 특강 시작 (인터뷰 어떻게, 왜 하는가) ▣ 연구 주제 정하기 대토론 ▣ 팀 나누기 10대 연구소 14

표 II-5 5회차 계획안

주차	5	일시	2019. 03. 23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연구 윤곽잡기 연구방법 특강 및 실습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주제 정하기 대토론 2부 - 안전한 연구 커뮤니티를 위한 약속 만들기 3부 - 인터뷰 특강 4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정리				
준비물	포스트잇, 전지, 펜, 마커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굴, 빵, 과자. 방울토마토, 머핀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1-10까지 내 기분?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연구방법 특강	2. 1부- 주제 정하기 대토론 -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나? - 연구주제 선정: 10대가 전문성이 있는 주제, 그 동안 말해지지 않은 주제 -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 현재까지 나온 연구주제 공유 3. 2부 - 안전한 연구 커뮤니티를 위한 약속 만들기 연구 커뮤니티 만들기에 대해 토론: 신뢰에 기반한 토론의 중요성 내가 속한 커뮤니티 사람들과 대화하기: 우리는(의도하지 않게) 차별, 불평등에 보탬 수 있다는 점 4. 3부 - 인터뷰 특강 인터뷰 어떻게 해야하나?				ppt 전지 마커 포스트 잇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10대연구소 5회차 10대연구소	2 오프닝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10까지 내 기분 10대연구소
3 오늘의 계획 - 오프닝: 안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 주제 정하기 대토론- 왜 하지? 어떻게 하지? - 인터뷰 특강- 왜? 그러면 어떻게? - 마무리 10대연구소	4 다음주 10대 연구소를 위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X하자센터 MOU 업무 협약식 참석 10대연구소
5 같이 일하기 연구 커뮤니티 만들기 완벽하지는 않은 나와 함께 일하는 방법 10대연구소	6 복잡한 이야기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차별, 불평등에 보통 수도 있다. -이때 나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특히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 있는 동료,친구들이? - 심판 또는 손절만이 방법? 10대연구소
7 안전한 커뮤니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그럼에도 나아가려하는 사람들 ~신뢰에 기반한 토론 중요~ 10대연구소	8 드디어 주제 정하기 대토론 -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나- 10대연구소
9 연구 주제 선정 10대가 전문성이있는 주제 -내 이야기, 내 주변의 시각, 의미- 그 동안 말해지지 않은 주제 - 비청소년은 모르는, 중요한 이야기- 10대연구소	10 드디어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어떻게? 10대연구소

11 현재 연구 주제(3.23) 1. 학원 생태계 (불안 자극 광고물들, 진구와 경쟁 강조, 폭언, 폭행) 2. 10대의 꾸밈 문화 (서열이 되고, 캐릭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꾸밈) 3. 성소수자에게 위험한 학교 (왜 성소수자 혐오하지?) 4. 학교 내 페미니스트 혐오 (너 페미지? 가 욕이 되었다) 5. 청소년 우울증과 상담 현실과 어려움 (어떻게 느끼나, 뭐가 어렵나) 1(·)대인구소	12 연구 방법 특강 인터뷰 어떻게 할까? 1(·)대인구소
13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대인구소	14 다음주 예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MOU 업무협약식! ▶ 연구 주제 설계 하기 - 어떻게 연구할지, 실행계획 짜기 ▶ 연구 방법 특강 - 어떻게 관찰하나,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나 1(·)대인구소

표 II-6 6회차 계획안

주차	6	일시	2019. 03. 30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연구 윤곽잡기 연구방법 특강 및 실습				
구성	오프닝 -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약식 2부- 주제정하기, 팀 정하기 3부- 주제 탐구 품앗이 4부-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포스트잇, 펜, ppt, 전지,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두유, 김밥, 떡, 토마토, 바나나, 머핀, 미니파이, 음료(등글레차,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1-10까지 내 기분?				ppt
연구방법 특강	2. 1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과 협약식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과 인사, 대화 - 협약식 진행 3. 2부- 주제정하기, 팀 정하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나?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까지 토론에서 나온 연구주제 확인 4. 3부- 주제 탐구 품앗이: 1차 브레인 스토밍 10대 꾸밈문화에 대해 우리가 목격한 현상, 들은 말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연구주제에 대해 인터뷰할 질문들 토론하고 정리하기 시작질문, 마지막질문, 주제별질문, 추가질문 적어보기				ppt 전지 포스트잇 펜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10대연구소 6주차 10대연구소	2 오프닝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10까지 내 기분 10대연구소
3 오늘의 계획 - 오프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약식 - 주제 정하기, 팀 정하기 - 무슨 주제 할 것인가? - 주제 탐구 풍선이 - 다함께 머리를 모아 1팀 주제씩 - 우리가 본 현상은 모음 - 해당주제 인터뷰 질문 만들기 10대연구소	4 이번 주 협약식 어땠나요? 10대연구소
5 안전한 커뮤니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그럼에도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 ~신뢰에 기반한 토론 중요~ 10대연구소	6 드디어 주제 정하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나- 10대연구소
7 드디어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어떻게? 10대연구소	8 현재 연구 주제(3.23) 1. 학원 생태계 (불안 자극 광고물들, 친구와 경쟁 강조, 폭언, 폭행) 2. 10대의 꾸밈 문화 (서열이 되고, 캐릭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꾸밈) 3. 성소수자에게 위험한 학교 (왜 성소수자 혐오하지?) 4. 학교 내 페미니스트 혐오 (너 페미지? 가 욕이 되었다) 5. 청소년 우울증과 상담 현실과 어려움 (어떻게 느끼나, 뭐가 어렵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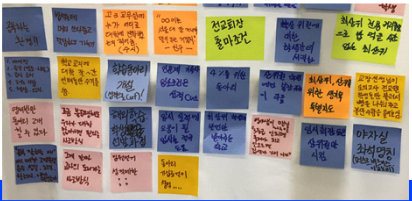
○ ◇ ▽ 1차 브레인스토밍 10대 꾸밈문화에 대해 우리가 목격한 현상 들은 말들 1(○)대연구소	○ ◇ ▽ 단, 이렇게는 말고 교복 차별 학교 생기부 1(○)대연구소
○ 구체적으로!!  1(○)대연구소	○ ◇ ▽ 인터뷰 방법을 떠올리며 시작하는 질문? 끝나는 질문? 주제별? 이 질문 적절한가? 추가 질문? 1(○)대연구소
○ ◇ ▽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대연구소	○ ◇ ▽ 다음주 예고 - 주제 탐구 동아리 - 다함께 머리를 모아 1팀 주제씩 - 연구 방법 특강 - 설문조사 만들기 1(○)대연구소

표 II-7 7회차 계획안

주차	7	일시	2019. 04. 06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연구 윤곽잡기 연구방법 특강 및 실습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부 - 연구주제 선정하기 2부 - 연구방법특강: 참여관찰 3부 - 연구주제 품앗이 4부-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 떡, 김밥, 과자, 방울토마토, 음료(커피, 민트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 나에 대한 3가지 정보 말하기 - 최근에 한 3가지 새로운 경험 말하기				ppt
연구방법 특강	2. 1부- 연구주제 선정하기 - 10대가 전문성이 있는 주제: 내 이야기, 주변 시각 등 - 그 동안 말해지지 않은 주제: 비청소년은 모르는 이야기 - 현상의 심층적 이해가 가능한 주제 - 당사자 혹은 내부자의 생생한 사례분석 - 연구질문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3. 2부- 연구방법 특강: 참여관찰방법 - 연구구제 관련된 현상, 말을 기록하기 - 설정한 연구구제에 대해 우리가 관찰할 지점들 살펴보기 4. 3부 - 연구주제 품앗이 - 연구구제 관련된 경험 나누기 - 인터뷰 질문 함께 토론하기				ppt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7회차 	2  오늘의 계획 - 오프닝 - 하우두유투? - 연구 방법 특강 - 참여관찰 - 주제 탐구 풀앳어 - 다함께 머리를 모아 1팀 주제씩 - 우리가 본 현상은 모음 - 해당주제 인터뷰 질문 만들기 
3  오프닝 나에 대한 3가지 TMI 혹은 최근에 한 3가지 새로운 경험 	4  연구 주제 선정 10대가 전문성이 있는 주제 -내 이야기, 내 주변의 시각, 의미- 그 동안 말해지지 않은 주제 - 비청소년은 모르는, 중요한 이야기- 
5  연구 주제 감잡기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의미있으려면? 현상의 심층적 이해 당사자/내부자의 생생한 사례 분석 	6  우리는 깊은 이해를 원한다 입시제도 한 번에 바꾸기 '목욕집식' 교육법' 적용 청소년 자치기구 도입 보다는 왜 청소년도 자신의 인권보장에 (예: 두발자유) 회의적인가? 왜 학교는 교복제도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는가? 왜 밤새 공부하는 것을 멋지다고 하는가? 
7  연구 질문, 우리 스타일로 청소년들은 얼마나 우울한가? 그 우울의 원인은 무엇인가? - 우울증 진단 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 '환인' 파악의 어려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교사는 '우울한 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나? 청소년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 우울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울하다고 말할 때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무엇인가? 	8  연구 방법 특강 참여관찰방법 

9 브레인 스토밍 이 연구주제에 대해 우리가 목격한 현상 들은 말들 11(→)대연구소	10 현재 연구 주제 1. 학원 생태계 (불안 자극 광고물 모음, 친구와 경쟁 강조, 폭언, 폭행) 2. 10대의 꾸밈 문화 (서열이 되고, 캐릭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꾸밈) 3. 청소년자의 일상 전략 (온오프라인 일상 전략) 4. 학교 내 페미니스트 혐오 (너 페미지? 가 욕이 되었다) 5.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경험 (어떻게 느끼나, 뭐가 어렵나)
11 브레인 스토밍 이 연구주제에 대해 우리가 인터뷰할 질문들 11(→)대연구소	12 인터뷰 방법을 떠올리며 시작하는 질문? 끝나는 질문? 주제별? 이 질문 적절한가? 추가 질문? 11(→)대연구소
13 다음주 예고 ○ 주제 탐구 동아리 - 다함께 머리를 모아 1팀 주제씩 ○ 연구 방법 특강 - 설문조사 만들기 11(→)대연구소	14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1(→)대연구소

표 II-8 8회차 계획안

주차	8	일시	2019. 04. 13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연구 윤곽잡기 연구방법 특강 및 실습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팀 결정, 첫 회의 2부 - 인터뷰 실습1, 인터뷰 실습 내용공유 및 수정 3부 - 인터뷰 실습2, 인터뷰 실습 내용공유 및 수정 4부-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ppt, 녹음이 되는 핸드폰(혹은 녹음기), 필기도구, 인터뷰 질문지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주먹밥, 청포도, 방울토마토, 과자, 음료(커피, 동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황 이야기하기 봉사활동 관련 공지 연구비활동비 공지: 서류와 사용기준				ppt
연구방법 특강	2. 1부 - 연구팀 결정, 첫 회의 내가 하고 싶은 연구와 할 수 없는 연구는 무엇인가? 수정의 중요성: 연구과정 중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연구주제와 연구팀, 팀원확정				ppt
연구방법 실습	3. 2부 - 인터뷰 실습1, 인터뷰 실습 내용공유 및 수정 1:1로 연구원과 짝을 이루어 인터뷰 실습하기: 인사, 녹음, 기록, 상품권 전달, 수령증 받기 인터뷰 기록지 써보기 인터뷰 질문 리스트 검토하기 인터뷰 수정하고 싶은 사항 토론하기 인터뷰 시작할 때 소개 질문 구성하기 4. 3부 - 인터뷰 실습2, 인터뷰 실습 및 수정 1:1로 연구원과 짝을 이루어 인터뷰 실습하기: 인사, 녹음, 기				ppt, 녹음이 되는 핸드폰(혹은 녹음기), 필 기도구, 인터 뷰 질문지

	록, 상품권 전달, 수령증 받기 인터뷰 질문수정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8 주 차	2 오늘의 계획 - 연구팀 결정, 첫 회의 - 연구활동비 관련 공지, 봉사활동 시간 공지 - 인터뷰 실습 1, 수정 - 인터뷰 실습 2, 그리고 수정 - 연구 설계 1차
3 연구소 운영회의 - 잘 지냈나요 - 봉사활동 관련 공지 - 연구활동비 관련 공지: 서류, 사용 기준	4 연구의 핵심 - 대학 목표, 전문 것은 무엇인가? (관심 분야로 정해볼 수 있음) - 대학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 전문가로 일해서 하려는 일) - 수업, 수련, 그리고 수련 (인간적 특성은 무엇인가, 인간적 특성을 어떻게 활용할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5 연구팀 결정 - 학교 안 페미니스트로 섰다는 것은 - 불안과 폭력의 학원 생태계 10대의 우울, 그것을 둘러싼 사각과 문제들	6 실습하자! : 인터뷰 실습 1차 - 인터뷰 질문 리스트 검토 하자 - 수정하고 싶은 사항? - 인터뷰 시작할 때 뭐라고 소개?
7 실습하자! : 인터뷰 실습 1차 - 인터뷰 질문 리스트 검토 하자 - 인터뷰 할 사람 (1차) 선정 - 다른 팀원을 한 명씩 짝지어 인터뷰 하자: 연세, 나이, 경력, 전공 관련, 수련을 받게 - 인터뷰 기록지 확보자: 사전은 인터뷰 할거야, 손으로, 교재는 30대까지	8 어땠나요?
9 돌아보는 인터뷰 핵심 정리 - 눈을 보고 대화한다. 질문지를 읽지 않는다. - 대답한 것을 잘 듣고 다시 질문한다. 추가 질문은 언제나 중요. - 질문 리스트에서 융통성을 발휘한다. - 순서를 바꾸거나, 말하기 쉽게 만든다. - 내가 대화를 지배하거나 제우지 않는다. - 왜? 어째서? 라는 질문을 놓지 않는다. - 나의 의견이 달려도 충분히 듣는다. (설득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해 인터뷰 하는 것이 아니다.) - 내가 왜 이 인터뷰를 하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한다.	10 실습하자! : 인터뷰 실습 2차 - 인터뷰 질문 리스트 검토 하자 - 인터뷰 할 사람 (1차) 선정 - 다른 팀원을 한 명씩 짝지어 인터뷰 하자: 연세, 나이, 경력, 전공 관련, 수련을 받게 - 인터뷰 기록지 확보자: 사전은 인터뷰 할거야, 손으로, 교재는 30대까지

◇ ▽ 수정 & 수정 11 ▶ 인터뷰 질문 수정 ▶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 이 연구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11(○)대안구소	◇ ▽ 다음주 12 ▶ 연구 설계도 작성-누구, 몇 번, 어떤 방식으로 ▶ 설문지 점검 ↑ 11(○)대안구소
13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 11(○)대안구소	

표 II-9 9회차 계획안

주차	9	일시	2019. 05. 04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현장조사 실시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팀 3차 회의 2부 - 연구 설계도 작성 3부- 팀별로 연구 설계 발표 4부-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전지, 포스트잇, 펜, 노트북,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주먹밥, 사과자, 청포도, 적포도, 음료(커피, 아이스티)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ppt
프로젝트 실행	2. 1부 - 연구팀 3차 회의 인터뷰 질문 수정하기 설문지 작성하기 3. 2부 - 연구 설계도 작성 -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대상 작성하기 - 연구방법, 연구예산 팀별로 토론하기 4. 3부- 팀별로 연구 설계 발표 - 팀별로 연구설계 내용 발표하기 - 연구설계 내용 발표 내용 토론하기				ppt 전지 포스트 잇,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0대연구소 9 주 차 10대연구소	오늘의 계획 - 오프닝: 지난 주는 어땠나요? - 연구팀 3차 회의 - 인터뷰 질문 한 번 더 수정, 연구 설 - 계 연구 설계도 작성 10대연구소
연구팀 3차 회의 - 인터뷰 질문 수정 다시 -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 설문지 작성 10대연구소	인터뷰 질문 수정 방향 인터뷰 답이 생각과 다르다 - 질문 수정, 방향 수정 이게 이진가? 그게 그건가? - 비교, 대조에 의한 분류하기, 정의 하기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는거야? - 명확하면 오히려 시야가 좁아져 있는 상태 10대연구소
연구 설계 10대연구소	연구 설계도 - 연구 제목 - 연구 목적: 연구 예 하는지, 정말 궁금한 것은? - 연구 필요성: 기존의 연구가 못한 점은 무엇인가? - 연구 대상: 장소, 대상, 왜 이들을 하게 되었는지 - 연구 방법: 어떤 방법? 인터뷰? 설문? 몇 명? - 연구 예산: 돈은 어디서 어떻게 쓸 예정? 10대연구소
연구 설계도 그리기 - 연구 제목: - 연구 목적: - 연구 문제: - 연구 대상: - 연구 방법: - 연구 예산: 10대연구소	연구팀 발표 연구설계에 대한 발표 10대연구소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0대연구소	

○ 10회차: 자체 연구 진행

표 II-10 11회차 계획안

주차	11	일시	2019. 05. 18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현장조사 실시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연구와 나는' 대회 2부-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샌드위치, 두유, 쌀과자, 방울토마토, 적포도, 떡, 음료(커피, 아이스티, 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ppt
현장조사	2. 1부- '연구와 나는' 대회 - 나는 우리연구문제에 대해 어떤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나 적고 말하기 - 연구자인 '나'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ppt 종이 펜
커뮤니티 활동	3. 2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4.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1 10대연구소 11주차 10대연구소	오늘의 계획 - 연구소 운영회의 - 연구 설계 재점검 - 연구에는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네. 구글 문서 사용해 보기 10대연구소
지금, 다시, 나 연구하기 ‘나는’ 으로 시작하는 이야기 말하기 대회 나는 우리 연구 문제에 대해 어떤 경험을, 역사를 가지고 있나. 학원에 대한 우울에 대한 페미니즘에 대한 나의 이야기 쓰기 10대연구소	연구자인 ‘나’를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 “연구자가 그들의 연구에 개인적 역사, 그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견해, 윤리적, 정치적 이슈들과 같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고려”가 필요함 (Creswell, p. 35) “연구자의 가치중립이란 실상 하나의 허구이며, 연구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택원, p. 17)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특수한 장소와 위치를 연구에 반영해 연구자의 주관성과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객관성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는 역설을 가능하게 한다.” (p. 18) 10대연구소
‘나는’ 말하기 듣기 함께 이야기하기 10대연구소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0대연구소

표 II-11 12회차 계획안

주차	12	일시	2019. 05. 25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현장조사 실시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현장연구리뷰 2부 - 연구팀 4차 회의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ppt, 종이, 펜, 녹음기, 포트, 컵 20개, 출석확인증 간식: 주먹밥, 청포도, 쌀과자, 샌드위치, 떡, 음료(커피, 동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기				ppt
프로젝트 실행	2. 1부- 현장연구리뷰 - 인터뷰 해보고 난 뒤 리뷰 - 참여관찰 결과 공유 - 조사시작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공유 3. 2부 - 연구팀 4차 회의 - 인터뷰 질문 수정 -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 - 설문지 수정해서 작성하기				ppt 종이 펜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11()대연구소 12 주 차 11()대연구소	2 ● ◇ ▽ 오늘의 계획 ○ ○ ○ ○ ○ 오프닝: 지난 주는 어땠나요? ○ 첫 필드워크를 마치고: 인터뷰, 참여관찰 해보니 어땠더라 ○ 연구팀 4차 회의 - 인터뷰 질문 한 번 더 수정, 연구 설계 ○ 마무리 11()대연구소
3 ● ◇ ▽ 필드에서 막 돌아왔죠? ○ ○ ○ ○ 인터뷰 해보니 ○ 참여관찰 해보니 ○ 조사 시작 단계 11()대연구소	4 ● ◇ ▽ 연구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 ● 분명한 목적의식 - 우리가 뭘 하려고 했더라 지속적인 유연함 - 내 생각이 틀렸구나! - 내 생각과 다르구나! 11()대연구소
5 ● ◇ ▽ 연구 초반에 일어나는 흔한 문제들 ● ● ● 보려고 하는 사건이 안 일어나! -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일어났는데 못 적었어! - 늘 메모 해야하는구나 적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돼 - 추가 정리를 해야 하는구나 11()대연구소	6 ● ◇ ▽ 연구팀 4차 회의 ○ ○ ○ ○ 인터뷰 질문 수정 다시 ○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 설문지 수정 작성 11()대연구소
7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1()대연구소	

표 II-12 13회차 계획안

주차	13	일시	2019. 06. 08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현장조사 실시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소 운영회의 2부 - 연구설계 재점검 3부 - '연구와 나는' 대회 4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샌드위치, 떡, 적포도, 과자, 음료(갈라만시, 동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기				ppt
프로젝트 실행	2. 1부 - 연구소 운영회의 앞으로의 일정, 워크숍 운영회의 3, 2부 - 연구설계 재점검 - 인터뷰 질문 수정 - 설문지 수정해서 작성하기 4. 3부 - '연구와 나는' 대회 - 나는 우리연구문제에 대해 어떤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나 적고 말하기 - 연구자인 '나'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5. 4부 -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0대연구소 13주차 10대연구소	● ◇ ▽ 오늘의 계획 ▷ 연구소 운영회의 ▷ 연구 설계 재점검 ▷ 연구에는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네. 구글 문서 사용해 보기 10대연구소
● ◇ ▽ 지금, 다시, 나 연구하기 “나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 말하기 대회 나는 우리 연구 문제에 대해 어떤 경험을, 역사를 가지고 있나. 학원에 대한 우울에 대한 페미니즘에 대한 나의 이야기 쓰기 10대연구소	● ◇ ▽ 연구자인 ‘나’를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 “연구자가 그들의 연구에 개인적 역사, 그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견해, 윤리적, 정치적 이슈들과 같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고려”(Creswell, p. 35) “연구자의 가치중립이란 실상 하나의 허구이며, 연구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택원, p. 17)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특수한 장소와 위치를 연구에 반영해 연구자의 주관성과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객관성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는 역설을 가능하게 한다.” (p. 18) 10대연구소
● ◇ ▽ ‘나는’ 말하기 듣기 함께 이야기하기 10대연구소	● ◇ ▽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0대연구소

표 II-13 14회차 계획안

주차	14	일시	2019. 06. 11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현장조사 실시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소 운영회의 2부 - 팀별 점검회의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샌드위치, 떡, 과자, 적포도, 방울토마토, 음료(칼라만시, 동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기				ppt
프로젝트 실행	2. 1부- 연구소 운영회의 앞으로의 일정, 워크숍 운영회의 3. 2부- 팀별 점검회의 - 연구가정 점검하기 - 참여관찰의 필요성 공유 - 인터뷰 경험 공유 - 현장연구 어디까지 했는지 토론				ppt 종이 펜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11()대연구소 14 주 차 11()대연구소	2 오늘의 계획 - 연구소 운영회의 - 문제 해결 커뮤니티 발동: 현장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함께 분석하기 - 마무리 11()대연구소
3 필드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10대연구소 데이터 공유회 2023. 05. 09 (수) 09:30~12:00 이화여자대학교 2층 회의실 하차민 11()대연구소	4 팀별 점검회의 - 진행 상황 - 연구 데이터 공유 - 새롭게 알게 된 것들 - 현장 조사 소감 11()대연구소
5 문제 해결 커뮤니티 - 우리의 가정 다시 점검하기: 공부 잘하는 애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 - 참여관찰의 필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많을 때 인터뷰가 잘 되더라 - 할 이야기가 많은 참가자: 인터뷰가 길어지고 길어진다? - 결론 공유: 질문을 미리 알려주면 정답이 나오지는 않을까? -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 11()대연구소	6 문제 해결 커뮤니티 현장 조사, 어땠나요?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나? 11()대연구소
7 챙겨야 하는 물품 - 인터뷰 사례 물품 (포스트잇) - 설문 사례 (물뽀) - 상품권 (1인 1시간 이내 1만원) - 인터뷰 기록지 - 상품권 수령자 정보 11()대연구소	8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1()대연구소

표 II-14 15회차 계획안

주차	15	일시	2019. 06. 22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현장조사 실시 -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현지조사 리뷰 2부- 설문조사 사례공부 및 설문조사 내용수정 3부-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과자, 떡, 빵(샌드위치, 식빵), 음료(갈라만시, 커피, 동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 내가 최근에 새롭게 경험한 것은? 1:1 상담시간 : 연구원들끼리 짝을 지어 대화 진행				ppt
프로젝트 실행	2. 1부- 현지조사 리뷰 - 참여관찰 수첩과 기록 점검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앞으로 현장연구 진행상황 체크하기 3. 2부 - 설문조사 사례공부 및 설문조사 내용수정 설문조사 사례를 통해 공통점, 참고점 토론 각 팀 설문조사를 함께 리뷰하고 추가로 묻고 싶은 질문 설정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11 대연구소 15 주차 11 대연구소	2 오늘의 계획 ○ 오프닝 ○ 1:1 상담 시간 ○ 이번 주 연구 현황 토론 및 발표 ○ 설문 조사 수정 ○ 다음 주 예고 11 대연구소
3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 내가 최근에 새롭게 경험한 것은? 11 대연구소	4 1:1 상담 시간 ○ 요즘 잘 지내? 어떤데는 없어? 고민이 뭐야? -다정-풍, 루-진 -양친구-삼해, 오리-은별 11 대연구소
5 이번 주 현장조사 리뷰 ○ 토론: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나 ○ 발표: 1) 재미있었던 점, 2) 새롭게 알게 된 점 ○ 참여관찰, 하고 있죠? 수침과 기록 점검~ 11 대연구소	6 설문조사 사례공부 ○ 10대 페미니스트 연구 참고: 대학생 성평등역시 설문조사 ○ 청소년 우울 연구 참고: 대전시민 정신건강 설문조사 ○ 학원 생태계 참고: 학원 폭력 실태조사, 운동선수 인권 조사 -> 공통점? 참고점? 신기한 점? 빠진 것? 11 대연구소
7 설문조사 해볼까? ○ 각 팀 설문 사례에서 우리도 묻고 싶은 것은? ○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11 대연구소	8 최종 발표회: 9/8(토) ○ 서울 청소년 창의 서밋 (9/7-8) ○ 사람들이 우리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 느낌을 가지길 바라나? 11 대연구소
10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1 대연구소	

표 II-15 16회차 계획안

주차	16	일시	2019. 07. 13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자료분석 및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현장조사 리뷰 2부 - 설문조사 설계 및 모의 테스트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밥, 과자, 자두, 음료(커피, 갈라만시, 민트티)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10대가 10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최종발표회 제목 정하기				ppt
자료분석	2. 1부- 현장조사 리뷰 - 녹취하는 법 학습 데이터 관리법 공유 현재 인터뷰 진행 체크 및 앞으로 현장연구 진행상황 계획하기 3. 2부- 설문조사 설계 및 모의 테스트 인터뷰 한 질문들로 설문항을 구성하기. 질문항목을 만들 때, 질문의 목적 생각해보기. 복합적인 질문항 구성하기(크로스 체크 염두에 두기) 개인정보 보호, 문의사항 컨텍 넘버 남기기 구글 설문지 사용법 익히기. 연구팀끼리 서로 설문조사 시도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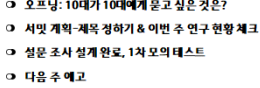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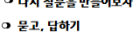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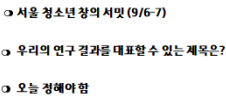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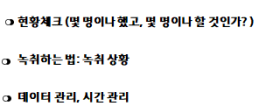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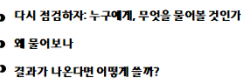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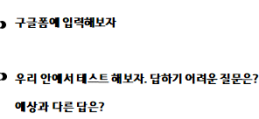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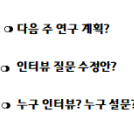
1  16 주 차 	2  오늘의 계획  
3  10대가 10대에게 묻고 싶은 것  	4  발표회 제목을 정하자: 9/7(토)  
5  이번 주 현장조사 리뷰  	6  설문지 수정  
7  설문조사 완성하자  	8  다음 주 현장조사 계획  
9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표 II-16 17회차 계획안

주차	17	일시	2019.07.20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자료분석 및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현장조사 리뷰 2부 - 녹취방법 학습 및 실습 3부-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빵, 과자, 천도복숭아, 자두, 음료(민트차, 커피, 갈라만시)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 나에게 일어난 별 일				ppt
자료분석	2. 1부- 현장조사 리뷰 - 현재 인터뷰 진행 체크 및 앞으로 현장연구 진행상황 계획하기 - 연구비 정산 및 인터뷰 사례 상품권 점검 3. 2부- 녹취방법 학습 및 실습 - 녹취의 필요성과 분석하는 법 - 연역적 분석과 귀납적 분석 내용학습 - 녹취전사 실습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K()대연구소 17 주 자 K()대연구소	2 오늘의 계획 - 오프닝: 별 일 없어 사나? 10대, 나도 나지만, 너도 너다? - 왜 저러고 살지? 삶을 짚는다? - 앞으로 일정 계획하기 - 녹취 전사 연습 K()대연구소
3 별 일 없나? - 오늘 나의 기분 1-10? - 나에게 일어난 별 일 K()대연구소	4 10대가 보는 세상 - 왜 저러고 살지? 어제가 연단다! 또는 어제는 되지만 왜 저러지? K()대연구소
5 발표회 제목을 정하자: 9/7(토) - 서울 청소년 창의 서밋 (9/6-7) - 우리의 연구 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은? - 오늘 경해야 함 K()대연구소	6 정산서를 쓰자 - 비용 정산 점검 - 인터뷰 사례 상품권 점검 K()대연구소
7 앞으로의 일정 - 앞으로의 일정 계획표를 확보자 - 이번 달 일정은? - 다음 달 일정은? -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K()대연구소	8 진행 상황 검토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인터뷰 내용은 충분한 깊이가 있나요? 원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자료가 준비 되었나요? 녹취를 할 쪽을 파악했는지? 녹취는 어디까지? 예산은? K()대연구소
9 왜 녹취가 필요할까? - 분석의 바탕은 데이터: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한다. - 기억의 왜곡 가능성 -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나 -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석하나? - 언역적 분석 (내 생각과 논리에 의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귀납적 분석도 중요! (생생한 10대들의 이야기) K()대연구소	10 녹취 전사 연습 - 해보자 - 궁금한 점? K()대연구소
11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K()대연구소	

표 II-17 18회차 계획안

주차	18	일시	2019.07.27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자료분석 및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자료 분석 특강 2부 - 연구자료 분석 실습 3부-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빵, 과자, 천도복숭아, 자두, 음료(민트차, 커피, 칼라만시)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 나에게 일어난 별 일				ppt
자료분석	2. 1부- 연구자료 분석 특강(자료분석과 해석방식) -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의미를 이해하기 - 분석에 유용한 태도란? - 모순과 불일치 찾기(예: 인터뷰와 관찰 정보 다른 경우) - 같은 사건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해석 3. 2부- 연구자료 분석 실습 - 녹취록 '열린 마음'으로 다시 읽고(3번 이상), 다시 듣기 - 키워드(해시태그) 뽑기: 주제만들기 - 인용할 만한 부분 형광펜으로 굿기 - 코딩 유목화, 범주화: 코딩 리스트 체크, 코드 비슷한 것 끼리 묶기(유목화), 새로운 코드 추가, 범주화(상위, 하위 구분)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0대연구소

18 주 차

10대연구소

오늘의 계획

- 오프닝: 지금 상태는?
- 특강- 분석이란?
- 분석 실습

10대연구소

별 일 없니?

- 오늘 나의 기분 1-10?
- 나에게 일어난 별 일

10대연구소

분석?

- 산을 오르기 (현장연구) → 산 정상에서 산을 바라보기 (분석)
- '점과 점을 잇다': 분석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의미를 이해
- "전혀 전두는 현장이 아니라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것"

10대연구소

분석에 유용한 태도

-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 충족/저항 이분법 으로 사람을 알 수 없다
- 내가 파악한 세계가 전부는 아닐 수 있다
 - '변하지 뭐.' 라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
- 나조차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
 - 그럼 어떻게 들었는대, 오늘 다시 보니 다른 의미였구나
- 다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10대연구소

자료 분석과 해석 방식

- 처음부터 끝까지 선입견 없이 읽어본다.
- 반복된 것, 자주 등장한 것, 공통 패턴을 찾는다.
- 모순과 불일치를 찾는다. (예: 인터뷰와 관찰 결과가 다른 경우)
- 같은 사건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른 해석 (그곳이 경쟁점)
- 뭐가 있나?
- 뭐가 없나?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지 않나?)

10대연구소

지금 해볼 것

- 다시 읽기, 다시 듣기
 -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일 때도 있다.
- 키워드 (해시태그 만들기): 주제 만들기
- 연용할 만한 부분 **발견**
- 3번 읽기
 - 1번은 그냥 읽으면서 키워드 뽑기, 2번은 키워드로 다시 분석하기 다시 읽으며 그 말이 있나

10대연구소

코딩-유목화-범주화

- 코딩 리스트 체크
- 코드 비슷한 것 끼리 묶기: 유목화
- 새로운 코드 추가
-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어느 사람에게 분류할까? 범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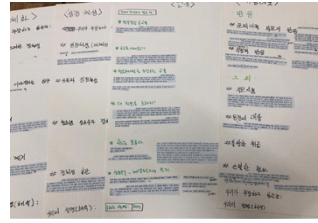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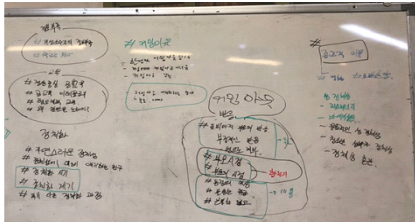
10대연구소

임시범 코드

#수면 시간	#작위	#고통 사례
#내연화	#각려	#고통 고통
#공정 아이러니	#작위 정당화	#무력함
#모순	#공정 의식	#정신 건강 지표 어려움
#스트레스	#난 안그래	#신체적 스트레스
#불기	#일상화	
#고통 일상화	#스트레스 무시	
#작위 경쟁	#연제나 공부	
#스트레스 외면	#삶의 다양성	
#지금이 제일 좋을 때	#임시 우선	
#자기 압박		

10대연구소

10대연구소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7(☆)대연구소

표 II-18 19회차 계획안

주차	19	일시	2019. 08. 03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자료분석 및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현장조사 리뷰 2부 - 연구자료 분석 실습 3부 - 설문조사 체크하기 4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밥, 천도복숭아, 과자, 음료(갈라만시, 민트차,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 최종발표회 제목 정하기				ppt
자료분석	2. 1부- 현장조사 리뷰 - 현재 인터뷰 및 녹취 진행 체크 및 앞으로 진행상황 공유 - 연구비 정산 및 인터뷰 사례 상품권 점검 3. 2부- 연구자료 분석 실습 - 전사자료 읽으며 키워드 정리해서 주제 구체화하기 - 선정한 키워드에 대해서 토론하기 - 코드 정리하기, 비슷한 코드 묶기 - 전사자료 중 인용할 만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4. 3부- 설문조사 체크하기 설문자료 취합하기 취합한 설문자료를 연구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토론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 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1()대연구소 19 주 차 1()대연구소	2 오늘의 계획 - 오프닝: 어떻게 지내? - 서밋 제목 정하기 - 워크숍 활동 계획 나누기 - 분석 특강 - 분석 실시 - 설문 다시 체크 - 마무리 1()대연구소
3 별 일 없나? - 오늘 나의 기분 1-10? - 어떻게 지내나? 1()대연구소	4 서밋 제목 정하기 10대의 삶을 더 넓게 (청소년 기본권을 열어야) 10대가 10대를 위해 1()대연구소
5 이번 주 현장조사 리뷰 - 현황체크 (몇 명이나 왔고, 몇 명이나 할 것인가? 진폭도?) - 녹취하는 법: 녹취 상황 - 데이터 정리, 시간 관리 1()대연구소	6 함께 읽으며 분석하기 - 전사 자료 읽으며 키워드 (해사대고 읽기) - 주제 만들기 - 안용할 만한 부분 함정면 - 짧은 해사대고 (코드)에 대해 토론하기 - 코드 모으기 1()대연구소
7 한 없이 코드가 늘어나면? - 비슷한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말로 한다 - 중요한 것 같은데 복잡해서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 코드 정리, 같은 코드로 묶기 1()대연구소	8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대연구소

표 II-19 20회차 계획안

주차	20	일시	2019. 08. 07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자료분석 및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2부 - 연구진행 상황 체크 3부 - 연구자료 분석 및 참고자료의 연결 4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밥, 떡, 천도복숭아, 과자, 음료(깎라만시, 민트차,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본 1-10				ppt
자료분석	2.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 각 팀 연구제목 정하기 - 작년 중간발표 리뷰 공유 3. 2부 - 연구진행 상황 체크 - 인터뷰 내용 살펴보기 - 녹취파일 보관 체크하기 - 예산 사용상황 체크하기 현장연구 진행상황 공유하기 4. 3부 - 연구자료 분석 및 참고자료의 연결 - 수집한 참고자료 검토 및 토론하기 - 연구에 사용할 참고자료 선별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20 주 차  20 주 차	2    오늘의 계획 ○ 오프닝 ○ 연구 발표회 계획 회의 ○ 연구 진행 상황 체크 ○ 분석, 선행연구 참고자료의 연결 ○ 마무리   
3    연구 발표회 계획회의 ○ 어떻게 구성할까? ○ 각 팀 제목은 어떻게 할까? ○ 무엇을 중점으로 할까?   	4    작년 중간 발표 리뷰 공유 ○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전달이 되는 것은 다르다. ○ 너무 졸졸졸 빨리 읽어서 이해가 안됐다. ○ 강약이 부족하다. 개그 조차 톤급 있을 때가 있었다. ○ 1년 역사가 더 잘 드러나게 해야한다.   
5    진행 상황 검토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인터뷰 내용은 충분한 길이가 있나요? 원하는 이야기를 잘 안들 지료가 준비 되었나요? 녹취를 할 녹음 파일은? 녹취는 어디까지 했나요? 예산은?   	6    분석? 기존 연구 - 내 연구 짚기 ○ 기존의 연구, 새로운 분석의 중요 바탕 뉴턴이 가인의 어깨를 딛고 서라던데... ○ 내 연구는 이 세상 처음, 아무도 한 적 없는 그런 연구?...일리가 없다. ○ 기존 연구는 이 연구가 대체 무슨 모양인지 감을 잡게 해준다 ○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뭔지도 알려준다. ○ 완전히 다르게? 는 어렵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입장이 드러나게는 할 수 있다.   

표 II-20 21회차 계획안

주차	21	일시	2019. 08. 10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및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2부 - 팀별자료 분석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노트북,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밥, 과자, 복숭아, 음료(칼라만시, 민트차,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ppt
자료분석	2.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 포스터 확인하기 - 연구발표회 일정확인 3. 2부 - 팀별자료 분석 -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자료 정리하고 공동 대본작성 - 코드 분류하고 분석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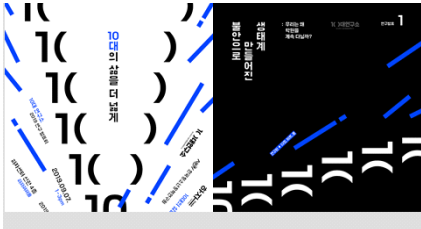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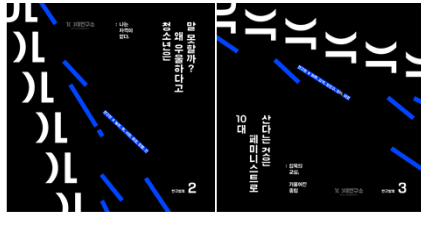
1 1C)대연구소 21 주 차 1C)대연구소	2 오늘의 계획 - 포스터를 구경함시다 - 데이터를 코드에 맞춰 정리하자. - 탐별 자료 분석 - 작년 발표 자료에서 배우기 1C)대연구소
	
3 	6 연구 발표회 준비 8월 25 일 (2-6시, 시간 확인) 추가 연습 가능할까요? 9월 6일 금 (공결 처리 - 오전 연습, 오후 서밋 참가) 9월 7일 토 (오전 10시 연습 시작- 오후 발표) 공결을 위한 학년, 반, 번호 (있는 경우) 지니에게 전달 1C)대연구소
7 #데이터 정리하기 - 구글독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한 함께 작업하기 - 코드 밑에 데이터를 넣어보자 (출처) - 다른 사람 데이터도 같이 넣는다. - 데이터가 코드와 맞나? 1C)대연구소	8 #코드 카테고리 정리하기 - 일단 다 월판에 써보자 - 코드들의 지도를 그려보자 - 그리고 다시 분석 분석 - 데이터 정리 정리 1C)대연구소
9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C)대연구소	

표 II-21 22회차 계획안

주차	22	일시	2019. 08. 17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및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2부 - 팀별 자료 분석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복숭아, 쌀빵, 과자, 음료(칼라만시, 커피, 민트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ppt
자료분석	2.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 연구발표회 역할분담 - 의상 및 순서정하기 - 연구회에서 공유할 내용 토론 3. 2부 - 팀별자료 분석 -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자료 정리하고 대본작성 - 코드 분류하고 분석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22 주 자 	2    오늘의 계획 - 연구 발표회 준비 - 코드로 발표자료 만들기 - 팀별 자료 분석 - 마무리 
3    연구 발표회 준비 - 역할 분담 -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리하기 - 의상 코드 정하기? 	4    이야기를 찾아서 - 내 연구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 연구 하기전에는 몰랐던 것이 무엇인가? - 사람들이 궁금해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 
5    #데이터 정리하기 - 구글닥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한 함께 작업하기 - 코드 밑에 데이터를 넣어보자 (출처) - 다른 사람 데이터도 같이 넣는다. - 데이터가 코드와 맞나? 	6    #분담 코딩 - 내 자료 분석 - 얼른 분석 
7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표 II-22 23회차 계획안

주차	23	일시	2019. 08. 24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및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2부 - 팀별 연구발표회 자료 만들기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과자, 쌀빵, 복숭아, 김밥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ppt
자료분석	2.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내용 토론하기 - 청소년 당사자 연구의 차별점에 대해서 토론하기 3. 2부 - 팀별 연구발표회 자료 만들기 - 주제: 제목에 넣기 - 주장: 한 문장으로 넣기 - 자료 분석한 사례 중에서 인용할 부분 정하기 - 자료에 대한 설명 붙이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1C)대연구소 23 주 자 1C)대연구소	2 오늘의 계획 ○ 오프닝 ○ 내가 상상하는 우리 무대의 모습은? ○ 최종발표의 계획하기- 청소년 당사자 연구의 강점 돌아보기 ○ 슬라이드 개요 짜기 ○ 마무리 1C)대연구소
3 발표회 무대에서 우리 모습 상상하기 ○ 우리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 어떤 모습여길 원하나? ○ 어떤 반응이면 좋을까? 1C)대연구소	4 우선순위 정하기 ○ 연생애 대한 고민은 중요,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다가온다면? 비행기를 타고, 고민을 계속할건지 고민을 하다 비행기를 놓칠 건지 결정을 하자. ○ 그럼 이제 뭘 해야할까? 비행기 시간에 맞추려면 1C)대연구소
5 내가 관객이라면? ○ 누군가의 연구발표회를 보러갔다. 우리는 무엇이 궁금할까? ○ 특히 청소년 연구라면? 1C)대연구소	6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좋을까? ○ 어떤 느낌을 받길 원하나? ○ 보고나서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나? 1C)대연구소
7 분석, 우리의 차별점 ○ 청소년이 청소년에 관한 지식을 만든다. ○ 그냥 청소년의 목소리가 아닌, 연구를 통한 근거에 기반한 우리의 지식 ○ 지식?: 과학적 방법을 통한 현상의 법칙 발견, 현상에 대한 타당한 설명 그동안 어른들이 만든 입시에 대한 설명, 청소년자 청소년에 대한 설명, 서열에 관한 설명을 뒤집어 보자. 1C)대연구소	8 연구 결과 슬라이드 ○ 주제: 제목에 넣기 ○ 주장: 한 문장으로 넣기 ○ 데이터 분석된 타래 중에서 인용할 부분 정하기 ○ 설명 붙이기 1C)대연구소
9 연구 결과 슬라이드 ○ 주제: 제목에 넣기 ○ 주장: 한 문장으로 넣기 ○ 데이터 분석된 타래 중에서 인용할 부분 정하기 ○ 설명 붙이기 1C)대연구소	10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C)대연구소

표 II-23 24회차 계획안

주차	24	일시	2019. 08. 31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팀별 연구발표회 자료 만들기 2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밥, 과자, 김밥, 복숭아, 음료(커피, 민트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ppt
논문작성	2. 1부 - 팀별 연구발표회 자료 만들기 - 해야 할 일 리스트 만들고 업무 나누기 - 주요 쟁점 선별하여 발표 흐름 구상하기 - 선행연구와 기사 확인하여 발표자료 선별하기 - 설문분석하고 발표에 사용할 자료 구성하기 - 자료 종합하여 발표문 작성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3. 2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ppt
마무리	4.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24 주 차 	2  오늘의 계획 ○ PPT 수정 + 추가 (왜 연구했나, 연구 방법, 나와 연구 관계) ○ 설문 분석 (불만한 부분?) ○ 대본 작업 ○ 다음주 추가 작업 계획 
3  분업의 필요 ○ 해야 할 일을 리스트를 만들고 분업을 하자 ○ 어떻게 일을 나눌까? 	4  발표 흐름 짜기 ○ 무슨 얘기 부터 할까 ○ 무엇을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할까? (방법? 주요 내용? 고민?) ○ 사람들은 무엇이 궁금할까 
5  중요한 요소들 ○ 프로젝트 소개: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 어떻게 해왔는지 ○ 주요 경쟁: 3개 정도가 적절 ○ 우리의 생각 변화 	6  중요 요소 2 ○ 선행 연구와 기사들 ○ 선행연구와 공동참: 것봐 우리만 그런 거 아니려나? ○ 선행연구와 차이점: 우선 어떤 차별 점을 만들어놔야. 
7  PPT 내용 수정 ○ 흐름과 제목, 소제목 더 잘 와 닿도록 고치기 ○ 자료 선행하기 (더 하거나 빼거나) ○ 추가 항목 넣기 (왜 연구했나 - 시대, 사회적 문제 연구 방법 우리는 누구인가 연구들 통해 인한 생각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8  설문 분석 ○ 주요 결과는? ○ 인용하고 싶은 부분은? ○ 분석 방법 (남태예 따라, 주요 응답 패턴대어지 개산 등) 
9  대본은 어떻게 생겼나? ○ 슬라이드별로 설명하는 내용 ○ 우리의 입말로 쓴 대본 *참고 자료를 보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포럼 발표문 	10  분업의 필요 ○ 설문 분석, 선행연구 인용할 부분 선택할 초 ○ PPT 추가내용 작성초 (왜 연구했나, 연구방법 등) ○ PPT 현재 내용수정 및 보완초 ○ 분담하여 대본 작성 시작 

표 II-24 25회차 계획안

주차	26	일시	2019.09.21.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발표회 리뷰 2부 - 논문작성 및 추가 발표회 진행 3부 -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정산 4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과자, 쌀빵, 머핀, 사과, 음료(커피, 민트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자신에 대한 정보 3가지 말하기				ppt
논문작성	2. 1부 - 연구발표회 리뷰 - 나의 발표에 대한 소감 - 다른 팀 발표 중 인상 깊었던 내용 토론 2. 2부 - 논문작성 및 추가 발표회 진행 - 추가로 작업하고 싶은 내용 - 팀별 논문 작성 계획안 쓰기 3. 3부 -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정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하고 싶은 정책제안서 작성 - 연구비 및 인터뷰 사례 상품권 최종 정산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11)대연구소 25 주 차 11)대연구소	2 오늘의 계획 - 하우두유두 - 발표회 리뷰: 어땠습니까 - 후속 계획 논의: 논문작성, 추가 발표회 진행 - 정책제안서 작성 - 정산, 정리 11)대연구소
3 하우두유두 돌아온 TMI 팀장단 11)대연구소	4 발표회 회고- 팀별, 전체 - 나의 발표에 대한 소감 - 다른팀의 발표 내용 중 인상 깊었던 것 - 혹시 추가로 작업하고 싶은 것 11)대연구소
5 후속 계획 논의 팀별 논문 작성 계획안 11)대연구소	6 정책제안서 작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하고 싶은 정책제안서는? - 왜 해야하지? - 누가 하면 좋을까? 11)대연구소
7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11)대연구소	

표 II-25 26회차 계획안

주차	26	일시	2019.09.28.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논문작성 및 추가 발표회 진행 2부 -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정산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과자, 쌀빵, 토마토, 음료(두유, 민트차,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자신에 대한 정보 3가지 말하기				ppt
논문작성	2. 1부- 논문작성 및 추가 발표회 진행 - 추가로 작업하고 싶은 내용 - 팀별 논문 작성 마무리하기 3. 2부 -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정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하고 싶은 정책제안서 작성 - 연구비 및 인터뷰 사례 상품권 최종 정산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2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1  26 주 차  	2  오늘의 계획 - 오프닝-하우두유두 - 최종 논문작성 - 정책제안서 작성  
3  하우두유두 돌아온 TMI 탐정단  	4  논문작성하기 - 내용보충하기 - 글을 여어서 쓰기 - 자료 추가하기  
6  정책제안서 작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하고 싶은 정책제안서는? - 왜 해야하지? - 누가 하면 좋을까?  	5 오늘의 소감 돌아가며 말하기  

○ ————— 제3장 청소년 참여 연구결과

- 1. 우리는 왜 학원을 계속 다닐까?: 불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
- 2.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사라진 대화, 강요된 중립
- 3.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할까?: 나는 자격이 없다.

주제1. 우리는 왜 학원을 계속 다닐까?: 불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

연구원: 품, 다정, 미르, 줄리

1. 서론

1) 주제선정이유

저희의 연구 제목은 ‘불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입니다. 저희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학원에 관한 발표라고 하면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대, 저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삶에서 학원이 빠진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학원을 다녀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안 다닌 때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사자로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연구방법

저희는 16~19세의 학원에 다닌 적 있거나, 학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16~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68명이 응답했습니다. 참여관찰은 학원과 과외, 학교 등에서 진행하며 기록하였습니다.

3) 연구 참여자

표 Ⅲ-1 연구 참가자 목록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보선	여	17세
미숙	여	17세
서윤	여	18세
민지	여	17세
새봄	여	18세
서연	여	17세
유나	여	19세
준하	남	18세
지수	여	18세
우성	남	18세
원송이	남	18세
윤서	여	18세
이중	여	17세
레미	여	18세

2. 연구결과

1) 학원, 고통의 공간

저희 연구의 첫 번째 주제는 〈학원, 고통의 공간〉입니다. “넌 지금 몇 등인데?” 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넌 지금 몇 등인지” 끊임없이 묻는 것 입니다. 동네 학원을 살펴보면 설연(서울대와 연세대의 줄임말)이라는 학원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의 이름부터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학원의 광고지 또한 대학 입시 결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학원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플랜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플랜카드 걸고 누구누구 이름 써 놓고 무슨 대학교 합격, 이렇게 써 놓고. 되게 대학 이름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부담? 부담으로 느껴지지. 나는 아직 대학에 안 갔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좋은 데를 들어가지 못하면 차라리 가지 말아야겠다 싶을 정도로, 좀... 내 수준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 지수(18세, 여)

영어학원 쌤이 개는 평소에 놀면서 하는데 시험만 보면 전교 1등이라는 거야. 솔직히 안 믿겼는데, 우리 플랜카드 있거든? 거기에 일등에 막 땡땡땡 이렇게 있는 거야. 학원 앞에 막 100점 땡땡땡, 99점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어. 95점 이상. - 미숙(17세, 여)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플랜카드에 나온 내용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대학 이름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아, 이름이 없는 대학이면 아예 가지를 말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수준이

플랜카드로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미숙에 의하면 플랜카드에 실리는 것도 ‘아무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95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청소년만 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거를 알아요. 연고전이나 고연전 같은 그런 학교만의 프라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많다는 걸 아는데.. 그런 학벌 편향주의 된 사람을 사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싫구 그 사람들을 보면 구역질이 나요.(...) 학원 칠판이 있는데... 그... 서연고랑... 이제.. 어..지방의대하고 이대간 사람들 이름이 써져 있는 칠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시선을 들면은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는 시간에도 (엎드린 자세) 이러고 있어요.” - 레고(19세, 여)

때로 이런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입니다. 레고는 학원 칠판에 써 있는 플랜카드를 보고 싶지 않아서 쉬는 시간마저도 엎드려있었다고 말합니다.

(1) 학원이 가하는 고통, 감시: 네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네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학원이 가하는 다른 고통은 ‘감시’입니다. 데스크, 러닝 룸에는 CCTV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여기서 러닝룸은 자습실을 말합니다. 즉, 학생들이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찍히고 있고, 누군가가 언제나 감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원에 오히려 너무 많이 다녀서 내 개인 공부 시간이 아예 없고 집에 오면 또 쉬어야 하니까 거기에 패턴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답답함이라고 해야 되나? - 유나(17, 여)

영어 학원 자습실에 CCTV가 있거든 그 책상들이 짝 있단 말야. 의자도 마음대로 못 빼. 되게 좁은 방에, 좁은 방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넣어 가지고 꾸역꾸역 책상을 밀어 넣었는데 거기 또 CCTV가 있어. 예를 들어서 단어 외우다가 폰을 잠깐 하면, 그걸 데스크에서 쌤이 보고 있거든. 그럼 쌤이 들어와. 그래서 “너 폰 지금 이거 하지마.” 해서 뺏어.

- 민지(17세, 여)

우리는 학원 교실에 들어가서, 학원 자습실에 들어가서. 학원 어느 곳에 있어도 감시당합니다. 인터뷰에서 연구 참가자는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비좁은 학원 자습실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단어를 외우다 잠깐 폰을 봐도 감시하고 있는 선생님이 휴대 전화를 뺏는다고 합니다. 단어를 외우는 용도 이외에 내 몸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따로는 아니고 그냥 거기 CCTV가 있거든? 그래서 1층에 선생님이 있고, 4층이 독서실인데, 1층에서 관리하시는 쌤이 독서실 CCTV로 감시하지. 그 핸드폰도 학원 들어가기 전에 다 반납하고서 학원 끝나고 다시 받지. - 미숙(17세, 여)

우리 학원에 급식실이 있어. 애들 밖에 나가서 밥 사먹으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학원에서 먹을 수 있게 식권 3,000원짜리 줘. 자습실에서 몰래 핸드폰 하거든? 그러면 데스크쌤이 CCTV로 보고 마이크로 “OOO 핸드폰 하지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쪽팔려

(참여관찰 2019년 7월 27일)

학원에 CCTV가 있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핸드폰은 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반납합니다. 흔히 10대들이 하루 종일 휴대 전화에 매달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10대들이 10대와 핸드폰으로 연락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뺏고, 학원에서 뺏고, 집에 간다고 편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한 참여관찰에는 학원에 급식실이 있어 학생들을 최대한 학원 밖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CCTV로 감시하고, 마이크를 “OOO 폰 하지마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2) 학원이 가하는 고통, 폭언과 성차별: 성적만 오른다면 괜찮아

감시도 폭언도, 폭력도, 성차별도 성적만 오른다면 괜찮은 일이 됩니다.

숙제를 안 해오거나, 재시험이 걸리면 항상 “뒤지고 싶냐”, “죽고 싶냐”
이런 말은 항상 들었던 것 같아. - 민지(17세, 여)

빡대가리라던가. 너 이렇게 공부해서는 너가 원하는 대학 못 간다고. 니
같은, 니 같은 빡 대가리는 여기 발도 못 댄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그리고 또 그 입시 관련된 거에 외에서는 자기 수업을 잘 안 들으면 귀
는 달려 있는 거냐고 내 말 똑바로 이해하는 거냐고, 머리 제대로 달려
있는거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었었는데, - 민지(17세, 여)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에 다닙니다. 그러나 성적만
오르면 된다는 생각에 학원에서는 폭언,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은 이런 폭언을 듣습니다. 민지는 숙제를 안 해오면 “뒤지고 싶냐”, “죽고 싶냐”
이런 말들을 항상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의 수업을 잘 듣지 않으면 “귀는 달려

있는 거냐”, “내 말 똑바로 이해하냐”, “머리는 제대로 달려 있는 거냐” 라는 폭언들을 듣기도 합니다.

개가 처음으로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선생님이, 네가 본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2학기 교과서를 한 번도 안 펴봤으니까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대학에서 누군가를 뺨을 때 너 같은 애는 안 뺨을 것 같다고, 네가 그래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냐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 말이 되게 폭력적으로 들렸다고 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 지수(18세, 여)

난 오히려 그런 건 들어 봤어. 네 현실을 자각하고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으라고. '이 정도 성적으로는 인서울도 안돼'라고 얘기하면서 네 성적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좀 더 대학을 넓게 알아보고 좀 생각을 넓게 하라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어. - 지수(18세, 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을 갈 수 있겠냐”, “너 같은 애는 뺨지 않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인서울도 안 된다” 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청소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협박과 감시, 공부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남자애들이 욕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여자애들이 욕하면 여자애가 입이 왜 이렇게 가볍고 싸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많아. 그리고 여자애가 입이 거칠면 시집 못 간다 얘기하고. - 보선(17세 여)

내가 학원 끝나고 놀러 가려고 초커를 하고 갔는데, 쌤이 “너 일부러 이런거 하고 온 거야?” 이러면서 달라 보인다고 그러고. 한번은 딱 붙는

미니원피스 입은 여자 사진 보여주면서 자기 전 여친인데 어쩌냐고 예쁘지 않냐고 물어봄. 어찌라고. (참여관찰 2019년 8월 23일)

성적에 대해서만 폭력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성적과 전혀 관련 없는 성차별적인 얘기를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남자애들이 욕할 땐 가만히 있다가 여자애가 욕하면 입이 왜 이렇게 가볍고 싸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많아. 그리고 여자애가 입 거칠면 시집 못 간다” 와 같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참여관찰 중 학원 선생님이 초커를 하고 온 학생에게 “너 일부러 이런 거 하고 온 거야?” 하며 “달라 보인다” 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쌤이 때렸어요. 망치 같은 게 있는데 선생님이 “너 떠들지 말랬지” 이러면서 때린다던가. -(이중, 17세, 여)

거기 다니는 학생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애 좀 때려서든 어떻게 해서든 공부 좀 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봤고. 그런거 많이 본 것 같아. - 민지(17세, 여)

학원에서 육체적 폭행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런 것도 성적만 오르면 ‘큰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학원 선생님에게 “애를 때려서든 어떻게 해서든 공부 좀 시켜달라” 고 말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에서의 폭행이 완전히 학원 선생의 의지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인간 대접’을 안 해줘도 성적만 오르면 된다는 믿음이 학원의 이와 같은 행태를 더욱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대답 못하면 악수하는데 엄청 세게 잡는다던지 그런 식으로 애들 그러

고. 근데 점점 크니까 안 해. - 보선(17세, 여)

10시가 되면 꼭 다 나가야 하잖아. 그럼 9시 50분부터 거기 남아있는 학생들이랑 재시험 기다리는 학생들을 썩 다 밖으로 내보내. 9시 50분만 되면은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썩 다 복도에 있어, 그래서 거기서 테스트를 보는 거야. 난 그래서 거기서 11시 40분까지 있다가 와 본게 내 최대 늦게까지 있다 온 경험이고. 그랬던 것 같아. 항상 가면은 숨이 옥죄이는 느낌. - 민지(17세, 여)

(3) 학원이 가하는 고통: 청소년의 말을 들어 줄 사람이 있을까?

학원을 규제하는 여러 법이 있긴 합니다. 학원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에서는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재시험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9시 50분에 학원 복도로 나가 재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 40분까지 재시험을 보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 민지는 집에 올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학원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지정된 시간 외에도 학생들의 공부를 더 ‘관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CCTV를 설치한 학원은 운영 중이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저녁 10시 50분이었습니다. 이렇듯 민지의 인터뷰 내용은 한 학원의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잘 받아들여질까? 나는 아직 학생이고 나이도 어리잖아. 그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말해도 누가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쌤들은 어른이다 보

니까 약간 좀 말하기도 그럴 것 같아. -미숙(17세, 여)

찌를 수 있는 곳도 없고, 대처하는 것도 내가 아무리 뭐라 하고 끊어,
그럼 내가 다닐 학원이 없어. 한정되어 있어. 뭐라 막말 하고 끊을 수도
없어. - 보선(17세, 여)

청소년들의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학생들의 말을
믿고 존중하지 않는다.’ 와 ‘사실 당사자만큼 잘 알고 있지만 묵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학원은 우리에게 감시와 협박, 폭력의 공간이 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1) 학원, 안 다녀도 불안하고 다녀도 불안하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청소년들이 학원으로 발걸
음을 옮기는 까닭은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
에게 물었습니다. “학원을 안 다니면 어떨 것 같나요?” 청소년들은 입을 모아 “불안
할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학원을 다니지 않을 때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서 선생님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뒤쳐질까 봐, 다른 아이들과의 거리가
벌어질까 봐 막연하게 불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는 ‘다른
애들’ 이 있습니다. 나보다 위이거나 아래인 ‘다른 애들’ 말입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
우리는 종종 ‘다른 애들’을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학원 안 다니면 나야 좋은데 다른 애들은 벌써 막 학원도 다니고 예습

도 다 하고 그러는데 나만 좀 뒤쳐지는 느낌이 들면 많이 힘들 것 같아.
- 미숙(17세, 여)

“맨날 말로는 학원 끊고 싶어 하는데, 학원을 막상 안 다니면 불안할 것 같아. 말이 좀 모순적인데, ‘다들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 학원가서 공부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나는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좀 불안할 것 같아.” -민지(17세, 여)

이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뒤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의 결과를 다시 또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나보다 못하던 친구가 나보다 높은 성적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가끔은 나보다 성적이 떨어진 친구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가면서 자기를 깎아내리거나 ,다른 애를 보면서 내 성적에 안심을 하거나.” - 지수(17세, 여)

“그냥 학교에서 느끼는 경쟁들을 학원에서 또 느낄때부터 불안한게 학교에서도 다른 애들이 잘하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고 경쟁심리 때문에 진짜 막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았는데 더 잘하고, 약간 나 공부 못 한다고 무시한다거나 그런거 있잖아.”

- 민지(17세, 여)

나보다 높은 옆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위로 오르기 위해 우리는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불안하다지만 학원에 다니고 있더라도 불안이라는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학원을 다니고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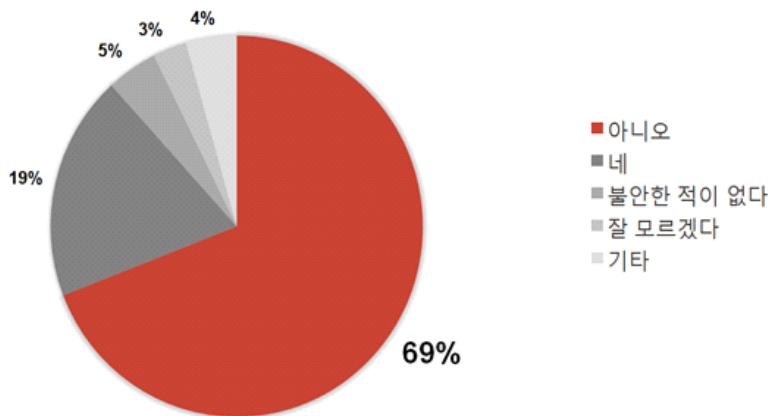


그림 III - 1 학원을 다니고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나?

학원을 다니고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70퍼센트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아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학원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오르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 “우리 학원 모르는 애들 불쌍하다.”, “OO 쌤을 모르니까 성적이 안 올라간다.”, “우리 학원 끊으면 너네 밀바닥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못 끊겠어. - 민지(17세, 여)

학원에서는 학원을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불안을 주입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학원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학원 끊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다고 막 00 끊고 다른 영어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엄청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해. - 민지(17세, 여)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자, 학교에서도 학원 다니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이미 학원에서 선행 학습으로 다음 내용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공식과 원리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하니 학원에서 배우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로 수업이 진행된다. 내가 학원에서 학교 수업보다 느린 속도로 처음 학습하였을 때도 이해를 잘 하지 못했는데 학교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처음 접한다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설문조사)

몇몇 쌤들이 중간중간 학원에서 배웠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음 (설문조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맞추어지다 보니 시험 또한 점점 어려워집니다.

수업에서 배운 걸 응용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시험문제는 응용하는 문제를 냈 (설문조사)

어린 시절, 중간고사 시험을 50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담임선

생님께 전화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원평가, 수행평가 모두 백 점을 맞았으면 그 단원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선생님의 수업에 문제가 있거나 시험의 난이도가 수업과 너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과 어머니는 그날 정말, 정말 길게 통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한참 경청하신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선생님 말씀은 결국 애를 학원에 보내라는 거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학원에 보내라. 이것은 비단 어머니께서만 내리신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이 학원을 다니게끔 유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던진 질문에 위에서 보시다시피 무려 80퍼센트가 넘는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학원의 영향력은 학교 그 이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행이란 명목으로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수업을 먼저 접합니다. 이제 학원을 그만 다닐 수도 없는 상황, 우리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하고 있는건지,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난 공부를 잘 하는 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는 이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학원에서의 여러 고통을 받고도 학생들이 학원을 끊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학’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대학은 꼭 거쳐야 할 관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 “내가 될 하든 대학은 가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성적은 안 되는데 대학은 가야 되는 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가고 싶다’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거의 세뇌된 수준으로 ‘가야 한다’인 것 같아. - 지수(18세, 여)

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정해진 꿈은 없거든요? 꿈은 없으니까 일단 부모님이 대학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럴 거면 꿈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공부밖에 없다. - 원송이(18세, 남)

대학만이 답인데,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공부할 줄 모릅니다. 주체적으로 공부할 줄 모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 의지의 문제? 억지로라도 안 오면 전화하는 사람 있고 수업을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하는 것 같아. - 지수(18세, 여)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은 각자의 학원 간판을 붙인 노트를 들고 교문에서 우리 학원 오라고 홍보를 합니다. 학원 또한 다양합니다. 체대, 미대, 국·영·수 학원이거나 할 것 없이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 줍니다. 공책 속에는 각 학교마다 예상 기출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어떤 학원으로 옮길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0학원이 족집게더라” 이런 식입니다. 학원은 몇 시에 오냐고 공부는 이렇게 하라고 학생들의 시간을 ‘관리’해 줍니다.

게다가 학교는 학원을 다닌 친구들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고, 그렇게 되면 학원의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며 학원은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인터뷰에서 학원에 다니는 가장 큰 장점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자신을 공부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강제성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막습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학원을 다니고 오면 스스로 공부할 힘도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는 이유: 무더짐

그리고 저희 팀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 폭언 등을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학생들은 학생이란 위치 때문에 말이 전달이 안 되고 그럼 끊으면 되지 하는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져서라고 답합니다. 저도 처음 학원에 갔을 때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저런 말을 듣는 것이 나만 불편한가? 싶었지만 저 또한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점점 무더졌습시다.

처음에는 완전 자존심 상하고 엄마 아닌 사람한테 처음 맞아 보니까 어? 뭐지? 하면서 조만한 자존심에 금이 가서 눈물 그렁그렁할 뻔 했는데, 맞을수록 생각이 없어져. 따끔하고 말지 이런 생각? 그냥 엄마도 사랑의 때 이런 거를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무더진 것 같아. - 보선(17세, 여)

근데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듣다 보니까 별로 이제 감흥도 없어. - 지수(18세, 여)

선생님들 소리 지르는 소리가 항상 들려. 진짜 과장 하는게 아니고 몇 분마다 한 번씩 야!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 민지(17세, 여)

학생들은 뭐 반항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순응을 했죠. 왜냐면 학교처럼 뭐 이르면, 학교처럼 고발하면 선생님이 그 직장을 잃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면 또 분위기가 막 체벌이 절대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학원은 - 준하(18세, 남)

그럴 때 (폭행당한 뒤) 개네들은 우리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굳이 잘못 된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선생님이 그럼 어쩔 수 없잖
아 학생들은. 엄마한테 가서 이르면 학생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을 할 것
같고. - 민지(17세, 여)

그러나 무더지기만 해서 힘든 상황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에는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해도 바뀔 것 같지 않다. 가 있고,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3. 결론: 청소년은 어른과 대화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제 3의 공간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은 일방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에는 자기 바쁩니다. 청소년들은 학원이 유일한 소통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집에
서는 가족들과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 학원 선생님과 대화는 어쩌면 유일하게
어른과 대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학원이
좋은, 좋아지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른과 대화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제 3의
공간이 필요하다>입니다.

주제2.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사라진 대화, 강요된 중립

연구원: 양친구, 이경, 오리, 삼색, 마루

1.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페미니스트로 세상을 산다는 것, 특히 10대가 학교 안에서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보고서를 읽으면 조금이나마 알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 연구원 모두는 십대 페미니스트 당사자입니다.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래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교사까지 포함된 ‘페미니즘 책모임’이 대외적으로는 전혀 다른 간판을 달고 전교의 단 8명만 아는 ‘지하조직’이 된 이유?

“얼마 전 친구가 ‘니네 쌤 페미라매?’ 묻는 거예요. ‘니네 쌤 일베야?’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근데 페미가 뭐냐?’고 또 물어요. 모임 소속 7학생)3)

이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가 우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것을 나타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를 직접 겪거나 보고 살아왔습니다. 반 친구들은 ‘페미’를 욕으로 씁니다.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성차별 같이 잘못된 것에 대해 의문을

3) 진명선, “아무도 청소년들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허프포스트, 2018년 8월 5일자.

제기하면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숨어있는 여성혐오 이게 여성혐오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래 뿌리 박혀 있어서 아무도 문제 느끼지 못했던 거 예를 들어서 온갖 부정적인 단어에 ‘계집 녀’자가 들어간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대부분 반응은 그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해? 그러는데.

- 인간고양이(18, 여)

하자에는 페미니스트가 많은데 일반 학교였으면 갑분싸 되죠

- 사과(17, 남)

페미가 학교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돼?) 하나의 욕이지. 그러,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뭐, 욕 중에서도 (삼색 : 응.)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개새끼라는 욕이 있는데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이 개새끼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잖아. (삼색 : 응.) 욕 중에서 골라서. 비슷한 거지. - zxx17(17, 남)

이렇듯 우리는 혐오를 접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 10대 연구원들은 왜 이렇게 페미니스트로 살기 힘들지? 하는 의문이 들어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연구 방법

10대 연구소 학교 안 페미니스트 연구팀은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교실에서 살기 힘들어졌는지에 대해 사회적 맥락과 교실의 맥락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연구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1) 심층면담

인터뷰는 2019년 5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여성 17명, 남성 7명이 인터뷰에 참가했습니다. 교실 안의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거나,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방법으로는 전화인터뷰, 집단인터뷰, 1:1인터뷰 등을 통해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표 Ⅲ- 2 심층면담 기간 및 참여자 개괄

인터뷰 기간	2019년 5월 30일~8월 19일
면대면	20명
전화 인터뷰	4명
그룹	3명

(2)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1일간 132명에게 응답을 받았으며 젠더퀴어 7명, 여성 82명, 남성 43명이 응답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익명으로 다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표 III-3 온라인 설문 기간 및 참여자 개괄

설문조사 기간	2019년 8월 3일~8월 24일
여성	82명
남성	43명
젠더퀴어	7명
총	132명

설문조사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페미니스트에게 반감을 갖는 이유에 대해 19명 중 11명인 57.9%가 성평등이 완전히, 혹은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왜 평등한데 자꾸 여성인권이 낮다고 외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55.7%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페미니스트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표 III-4 심층면담 참여자 목록

연구 참여자(가명)	나이	성별
예진	18	여
포도	17	여
초코	18	여
탱고	17	여
우유	17	남
비누	17	남

나무	17	남
가오리	18	남
소프트콘	18	남
로봇	18	여
미소	18	여
가현	18	여
엘리사	18	여
지수	18	여
누리	18	여
철수	19	남
수형	20	남
오션월드	18	여
zzxx17	17	남
박슈크림	17	여
루리	18	여
말친구	18	여
최복송	18	여
인간고양이	18	여

2. 연구 결과

1) 10대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

저희 10대 연구소 페미니스트팀 연구원들을 포함한 많은 10대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쉽게 밝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설문 조사를 보면, 반 이상의 많은 청소년들이 페미니스트임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페미니스트라면 학교 내에서 페미니스트임을 밝힐 수 있습니까?
밝힐 수 있다-48% 밝힐 수 없다-52% (설문조사)

왜 그들은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라고 밝히지 못할까요? 인터뷰를 통해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너 페미냐? 이럴때 선뜻 대답 못 하는 게 있고. 나 머리 자른 거 탈코르셋이냐고 물어봤을 때 차마... 말하기 무서워, 개네들한테는 '에이 그런 것 보다는 머리 자르고 싶어서지.' - 누리(18, 여)

여자 애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거든. 그래서 살짝 괜히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나마 덜 무서운데 내가 페미니스트라 밝혔을 때 내가 얻게 될 인간관계에서의 불이익이 무서워서 솔직히 숨기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

-말친구(18, 여)

대체로 학교에 있는 10대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에 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 같은 여성들에게조차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밝히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페미니스트임이 밝혀졌을 때 어떤 피해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피해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표 Ⅲ-5 학교 안 청소년이 공개적으로 페미니스트임이 밝혀졌을 때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있습니까?**

내용	응답자 수
없다	37명
비난, 조롱	74명
분위기, 혹은 태도의 변화	74명
따돌림	17명
물리적 폭력	5명
기타	5명
총	212명

위 설문조사를 보면, 비난, 조롱 그리고 분위기 혹은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2명 중 약 150명입니다. 이것만 봐도 위의 인터뷰이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과장이 아닌, 실제 일어날 법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배경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페미니즘을 잘 모르겠고, 그냥 메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페미니즘

이 안 좋아 보인다? 메갈이 중심이 아니라 진짜 정상적인 페미니스트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메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 미소(18, 여)

'해화역 시위'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같아요. 원래 페미니스트가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그런 집단인데, 약간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 하는 것을 보면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약간 그걸 넘어서서 여성의 우월... - 철수(19, 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4%의 청소년들이 주로 sns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정보를 접한다고 했습니다. sns에서 자극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페미니즘을 접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인식들은 실제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일반 학교였으면 갑분싸 되죠.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면 나가리 되죠. 분위기 완전하... 그리고 한 번 페미니스트라고 찍히면 신뢰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맞는 말을 해도 재는 페미니스트 발언 했으니까. 안 받아들여지고. - 비누(18, 남)

페미니스트라고 sns에 도배를 해 뒀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애한테 전화가 와서 너 메갈이야? 너 꼴페미야?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재 어차피 메갈이야, 꼴페미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배척한다던지 어떤 의제에서 저만 빼놓고 말을 한다던지 그런 태도적인 것들 - 탱고(17, 여)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보고) 싹 다 완전 페미니스트 욱하면서… 뭐 대갈뺨을 깨부순다느니, 믹서기로 간다느니… - 누리(17, 여)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헐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부정적으로만 생각 하다면서 페미니즘은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학교의 페미니스트들은 당연히 두려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불평등한 교실: 기울어진 중립

“페미니스트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는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을 워드클라우드 로 나타낸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III-2 ‘페미니스트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한 남녀 청소년의 워드클라우드

성평등, 여성, 여자, 인권, 당당함, 성차별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는 왼쪽 그림은 여성 청소년의 답변입니다. 반면 남성 청소년들의 답변인 오른쪽 그림에서는 메갈, 평등, 꼴페미, 남혐, 제발 같은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페미니즘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의 입장은”이라는 질문에, 여학생의 25%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75%로 세 배 차이였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 본인의 입장이 아닌 ‘대부분 학생들의 입장’을 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설문만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자신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대화하는 무리의 학생들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남학생끼리의 대화가 여학생끼리의 대화보다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교실에서 형성되는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불평등한 교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실에는 상당한 젠더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실 내 남자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배제와 억압은 그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연구 결과, 교실에서 분위기를 이끄는 권력을 가진 이들은 주로 남성 무리이고, 그 무리는 대부분 페미니스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쥔 이들이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교실 내 젠더 불평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실 내에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실 내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끊임없는 배제와 차별입니다. 우선 이들이 모이면 여자 청소년에 대한 얼평, 몸평을 비롯한 성희롱적인 대화가 이뤄집니다. 인터뷰이 포도(17, 여)는 “여자 몸 비하나 얼굴 비하,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는 것 같냐”는 질문에는 “신나는 분위기.”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희롱과 폭력의 순간은 웃기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이 최복승(18, 여)은 “남자애들이 여론 형성도 굉장히 잘해. 뒤에서 자기

네들끼리 얘기를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또 되게 과장을 해서 잘 얘기를 해. 여자애들이 개네가 무서워서 잘 흔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자애들이 남자와 여자고 되게 잘 휘둘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게 된 ‘여자애’에 대한 인식을 곧바로 공유하며 그것을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최복승(18, 여)은 “그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어장을 당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막 남자애가 뒤에서 얘기를 하고 다녀. “나 어장 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여자애랑 그 여자애 무리가 그 남자애랑 싸워. 그러면 그 여자애 무리 전체가 남자애들한테 표적이 되어가지고 놀림 받는 거야. 지나갈 때마다.”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애와 여자애에서 시작된 갈등은 무리 대 무리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남자애들 무리는 이미 공유된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여자애들 무리를 대놓고, 지나갈 때마다, 표적으로 설정해서 놀리고 비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여자애들 무리가 남자애나 남자애들 무리를 대놓고, 지나갈 때마다, 표적으로 설정해서 놀리고 비난하는 경우는 가능할까요? 최복승(18, 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애들도 뒤에서 남자애들 욕을 하기는 하는데, 앞에서 대놓고 막 그런 식으로 부르진 않고.. 여자애들이 남자애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없고, 남자애들이 남자애들을 그렇게 부르는 건 봤어. 좀 개네들이 흔히 부르는 ‘찐파 같은 남자애들’이 지나가면 막 성기를 여자애들한테 했던 것처럼 부르거나 “재 게이다” 이런 식으로?”

- 최복승(18, 여)

최복승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욕을 뒤에서 할 뿐 앞에서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애 무리는 여자애 무리뿐만 아니라 ‘찐파 같은 남자애들’이라고 불리는, 본인들이 남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공격합니다. 우에노 치즈코가 쓴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책에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문장이 나옵니다.

‘서로를 남성으로 인정한 이들의 연대는, 남성이 되지 못한 이들과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화함으로써 성립한다. 여성 차별뿐만 아니라 경계선의 관리와 끊임없는 배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남성됨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는가를 역으로 증명한다.’

우에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中〉⁴⁾

저희는 이 문장이 저희가 인터뷰하며 들었거나, 직접 겪었던 특정 남자 청소년 무리의 공격성을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그 공격을 유머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분위기를 손에 쥔 남성 무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개인을 눈치 보게 만듭니다. 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페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면은 바로 그냥 애들한테 장난이든 진심이든 욕을 먹고,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놀기 위해서는 페미를 욕하고. 페미들을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좀 대화에 낄 수 있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철수(19, 남)

남성 우리 내에서 여성 인권을 말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페미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문제제기도 어렵지만, 그 무리에 속한 남성의 문제제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 주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같은 무리일지라도 검열에 의해 쉽게 배척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우에노 치즈코(나일등 역), 2012, 은행나무.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는 남성 중심의 교실은 여성들의 생활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태도의 여성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위 여성에게 그 기준에 맞추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남자 친구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 워낙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애들이 반에서 여자애 순위 투표해서 순위 만들고, 근데 그런 걸 나는 너무 당연하게 받으면서 자라왔고, 이게 잘못된 걸 깨달았음에도 그런 영향에 의해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 인간고양이(18, 여)

인터뷰이 인간고양이(18, 여)는 자신이 남자애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영향 받아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쌍얼에 자신감이 없는 거지 화장을 안 하면. 그래서 마스크를 껴. 쌍얼을 보이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 위축된달까?”

- 예진(18, 여)

인터뷰이 예진(18, 여)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서 위축되고,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고 합니다.

“뭔가 화장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 이었고, 화장 안 한 친구들은 그저 그런 애? 너 화장 안 하니까 배제할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암암리에 서열이 매겨지는 거죠.” - 탱고(17, 여)

인터뷰이 땡고(17, 여)는, 교실에서 화장을 하는 친구들은 소위 ‘잘 나가는 애들’이고, 화장, 즉 꾸밈에 따라 암암리에 서열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이는 저희 연구원들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성중심의 교실은 여성에 대해 이상형 월드컵을 하고, 외모 순위를 매기고, 예쁘거나 못생겼다고 판단한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 단독방에 공유합니다. 과연 이러한 평가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남성 무리의 평가는 교실 내 서열이 매겨질 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분위기를 휘두르는 남자애들과 얼마나 친하나, 얼마나 잘 꾸미나 같은 것들은 특히 여성들 사이의 서열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 누군가는 교실 내에서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미 타이트한 교복을 더 타이트하게 줄이고, 귀찮고 싫어도 새벽같이 일어나 화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젠더 불평등의 교실에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배척당하지 않는 법을 터득하면서, 일상을 구속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교실은 어떤 존재일까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팀의 이번 발표 제목은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등한 교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실은 불평등하기만 한 걸까요?

3) 침묵의 교실: 이야기 자체를 못하는 교실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어제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실의 ‘고 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젠더 문제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더 심각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과연 페미니스트를 욕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싸우지않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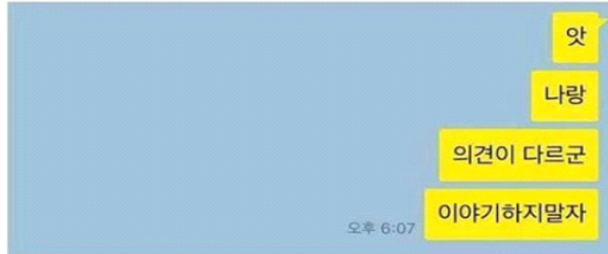


그림 Ⅲ-3 친구와 싸우지 않는 방법

위의 자료는 1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들에서 돌아다니던 이미지입니다. ‘앗 나랑 의견이 다르군 이야기하지 말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이미지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팀원들은 인터뷰이를 구하면서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몇 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연구원들이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많은 인터뷰이들이 망설였고, 다섯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참여 관찰을 하는 한 달 동안에도 다섯 교실에서는 모두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슈가 단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겪는 성차별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성차별을 겪지 않은 사람은 133명 중 11명으로,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90% 이상이 겪은, 우리에게 밀접한 이 문제는 어째서 이야기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인권운동을 해봤자.. 내 개인적인 이득보다, 사회적인 이득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좀 더 추구하는 사람이라...

- 가오리(18, 남)

학교에서 살기도 힘들고 한데.. 사회문제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고. 관심을 가지면 참 여유롭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 소프트콘(18, 남)

공부 잘 하는 애들은... 그런 거 관심 없잖아. 그냥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안 나오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냥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내 이야기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지. - 누리(18, 여)

인터뷰이인 가오리는 자신이 성차별을 비롯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개인적 이득을 좀 더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한 개인적인 이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프트콘은 비단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여유롭게 산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 ‘이득’과 ‘여유’는 “학교에서 살기도 힘들고 한데” 라는 말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입시’입니다. 누리의 말처럼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느끼지 못하게 되어왔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외우게끔 하는 것이 바빠, 제대로 설명을 할 틈조차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학교의 환경 안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의 가치는 ‘생기부에 들어가느냐’, 즉, 입시에 유효한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페미니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3년만 공부해라’. 학생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 학교 폭력, 학생 인권, 스쿨 미투와 그 밖의 많은 사회문제들은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 나왔습니다.

처음에 학교 안 페미니즘 혐오를 접했을 때 저희 팀은 이 문제를 페미니즘을 비하하는 학생들, 분위기를 조장하는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소수의 학생들만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고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성혐오, 페미니즘 혐오를 키워온 것은 방관해온 교실 안팎 모두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학생들이 공부 외에 가치를 두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한 구조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접할 기회가 없다가 크고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접해서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을 많이 접하는 매체가 유튜브인데. 청소년들이 뉴스를 보지는 않잖아요. 접하기 힘들고, 유튜브는 바로바로 올라오니깐. 유튜브는 조회수가 목적이잖아요. 그니까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고, 콘텐츠도 약간.. 수위 왔다 갔다금 해가지고 . - 소프트콘(18, 남)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도 페미니즘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과반수가 훌쩍 넘는 십대들은 페미니즘 관련 이슈를 책이나 강의 등이 아닌 sns 로만 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sns 매체는, 스마트폰의 말처럼 표면적인 내용 중에서도 자극적인 기사와 회화화 등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 많은 학생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꼴페미', '매갈', '쿵광' 이라며 조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이 페미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우려 또한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90퍼센트 이상의 학생이 자신이 학교 안에서 성별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페미니스트인 학생의 20퍼센트, 페미니즘에 대해 반감을 가진 학생의 60퍼센트는 ‘성평등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별로 인해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그것이 ‘성차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뷰 도중에도 ‘그런데 이게 성차별이 맞아?’, ‘이것도 페미니즘적인 면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 10대는 무엇이 성차별이고, 무엇이 페미니즘인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배울 기회와 시간, 그 무엇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을 사전에서 검색하면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차별, 그러니까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무지는 이를 없앨 것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자체와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예민하다, 혹은 직접 겪지 않은 일을 이야기한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설문 조사에서도 페미니스트를 비하하는 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46퍼센트의 학생들은 페미니스트의 예민함, 23퍼센트의 학생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직접 겪지 않은 일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실에는 페미니즘을 접할 기회, 제대로 알 수 있는 수업,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도 제대로 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론은 커녕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토론과 대화를 하는 방법도 당연히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입시를 위한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두려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기피합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연구원의 입장을 먼저 물어오던 친구처럼, 우리는 특정 친구들, 자신과 입장이 같음을 확인한 친구들과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에 대한 대화와 토론은 그 사람과 공간, 즉 우리 교실과 그 교실의 학생들을 안전한 사람과 공간으로 여길 때 가능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

때 공격당하지 않고 배제 당하지 않으리라는, 존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실 안에서 서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보다 ‘페미니스트’는 질문을 받거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도 앞서 살펴보았던 카카오톡 대화 그림처럼 ‘앗 나랑 의견이 다르군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지나치는 것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보편적입니다. 인터뷰이 최복송의 말처럼, 교실 안에는 이러한 현상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억압합니다.

3. 결론: 10대 페미니스트, 그럼에도 저항한다.

하지만 교실 안에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을 하는 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평등한 교실에서, 말 할 수 없는 교실에서 살면서 청소년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탈코’(탈코르셋)에 대한 고민이 그 중 하나입니다. 페미니즘 의제 중 에서 빠질 수 없는 탈코르셋은 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모습을 거부하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뜻하는 ‘코르셋’과 이것을 벗어난다는 ‘탈’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비롯해 여성의 사회적 기준에 문제의식을 지닌 여성들이 탈코르셋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난 인터뷰이들은 탈코르셋의 취지에 대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미 ‘여성의 화장은 예의’라는 관습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또 화장을 한 자신의 모습이 예쁘다고 느껴질 때, 동시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과도 “아! 오늘도 탈코 실패!”라며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예쁜 걸 좋아 하는게 어때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하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성혐오의 존재를 깨닫고, 성차별을 매순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의 모습’에 대해

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화장이 좀 첨가가 된 여성'으로서 얻는 이익이 분명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실 내 서열(화장 안 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은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회가 바라는 여자의 얼굴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화장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 중 하나는 내가 과연 페미니스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페미니스트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터뷰이 중 미소는 페미니즘에 동의하지만 탈코르셋 운동도 하지 않고, 시위에 나가지도 않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지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페미니스트들은 계속해서 저항해 나갑니다.

페미니즘에 관련한 글을 접하고 내 실생활이랑 접목을 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내 일이고. 진짜 문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된 것 같아. - 말친구(18, 여)

강남역 10번 출구 그 강남역 살인사건 때? 그때 뉴스도 보고, 약속이 있어서 강남역에 나갔는데 포스트잇을 봤는데 그 때 뭔가 멍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 인간고양이(18, 여)

10대들은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페미니즘이 남의 얘기가 아닌 자신의 얘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또 '어느 순간 여성혐오 범죄가 만연한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가'를

의심했고, 그 순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성혐오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실천을 시작해나갔습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이든지, 아니든지 말입니다.

개네들이 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어떻게든 얘기를 해보려고.

그게 “너희 그러지마, 잘못됐어” 그런 게 아니라도, 그냥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개네는 항상 나한테 남자애들끼리 하는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고. - 최복송(18, 여)

자신은 페미니즘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던 최복송은 인터뷰 마지막 즈음에 같은 반 남자애들끼리 흔히 장난이라고 얘기하는, 외모평가에 대해서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고 친구들이 용기 내서 뭔가 탈코르셋을 한다던가 아니면 관심을 가진다던가.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내심 뿌듯하기도 했고? 저도 친구 따라 한 거거든요 사실. 살짝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 탱고(17, 여)

친구를 보고 탈코르셋을 했던 탱고는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낸 친구들이 탈코르셋을 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뿌듯하다면서 주변에 탈코르셋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고 되게 여성적이고, 예쁘다 하면

“아 미안한데 그런 단어는 나한테라도 좀 사용을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것도 페미니즘 대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 말친구(18, 여)

말친구는 자신에게 ‘여성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에게 그런 단어는 지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페미니즘 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keep going. 그냥 계속. 많이 힘들더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

- 말친구(18, 여)

안 드러내도 된다고. 나도 고민 많이 하잖아 페미니즘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러는 거 나도 무섭고 힘든 걸 알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네가 그렇게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그냥 무서우면 좀 숨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지. - 누리(18, 여)

10대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또 다른 10대 페미니스트들에게 힘들더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안 드러내도 괜찮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제3.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 못할까?: 나는 자격이 없다.

연구원: 늘보, 시원, 은별, 진, 루, 유성

1.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찾은 신문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겪는 우울감 경험률은 비청소년에 비해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⁵⁾ 기사에는 청소년기가 성인이 되는 준비를 하기 위해 심신이 건강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는 준비를 하기 위해 심신이 건강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청소년들의 우울 경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한 이유는 이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나요? 분명 어제 밤 sns에는 우울하다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학교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갑분싸’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의 대화는 ‘갑분싸’ 피하기가 주를 이룹니다. 통제는 청소년이 우울하다는데 교실에서는 모두 웃고 있습니다. 물론 우울해서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청소년 상담 기관인 위클래스를 이용한 주변의 이야기는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문제도 있습니다. 청소년 우울 하면, 자살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으로 쓰는 글은 과연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우울에 대한 사회적 이해나,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 있는

5) 최주연, “청소년 정신건강과 의료계 역할”, 의학신문, 2019년 4월 8일자.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연구를 위해 저희는 인터뷰와 설문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인터뷰는 여자청소년 22명, 남자청소년 11명과 이들의 교사, 부모인 비청소년 7명으로 총 40명이 참여했습니다.

표 III -6 심층면담 참여자 목록

면담 대상자	성별	나이
린린	여	18
우진	남	18
무지개	여	18
영초	여	19
사과	남	18
홍길동	여	18
원재	남	18
초코	남	18
바닐라	남	18
지훈	남	18
허기	남	18
빈둥	남	33
연주	여	25
수경	여	39
간지왕	여	18

토끼	여	18
레고	여	19
느림보	여	17
장	여	17
올레아이	여	17
언니	여	19
오빠	남	28
아침	여	47
조	여	18
호돌이	남	18
부산	여	19
김지호	남	18
강민이	여	19
이해선	여	19
임서영	여	17
익선	여	17
은하	여	33
임티	여	17
재호	여	18
코봉이	남	17
새벽	여	17
그믐	여	17
또치	여	19
하정우	여	18
채소	남	54

2. 10대는 우울한가?

1) 지금, 우울한 청소년들

여러분은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경험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인터뷰 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다른 세상이 하나 더 있는 거 같은 느낌. 뭔지는 모르겠어. 학교에서 얘기를 하다가, 집에 갈 때 돌아서자마자 그러거든. 나뉘는 거 같아. 학교에서 기운을 다 소비를 하니까 집에 오면은 또 혼자 막 이려고 있고.”- 임서영(17세, 여)

“내가 지금 우울 속에 가라앉아 있거든?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안에 있으니까 밖이 보이지 않는거야. 밖이라는, 지금 나랑 다른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안 보이니까. 그냥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너무 힘들니까 그냥 나는 나 자체로 우울한 덩어리지.”

- 영초(19세, 여)

“우울할 때는 되게 뭐라 하지,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야, 계속 가라앉다가, 언제쯤에는 뜰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가라앉는 느낌,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축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앞길이 너무 막막해. 그런 느낌이야.” - 임티(17세, 여)

이런 느낌이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들어 보니 어떤가요? '나이도 어린 것들이 뭘 그렇게 우울할 게 많아?' 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인터뷰 했던 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들이 뭐가 우울할 게 그리 많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아이들은 아직은 사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고비를 매일 매순간 받고 있기 때문에 꽤나 우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주(25세, 여)

저희는 위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고비를 매일같이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 10대가 왜 우울하냐고요?

청소년이 우울하다고 하면 ‘입시’와 ‘학업’을 쉽게 그 이유로 떠올리지만, 이것만으로는 10대가 느끼는 우울감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고비’라고 느낄 때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라고 한 인터뷰 참가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지금 성적이 미래와 직결 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미래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듭니다. 여기서 ‘열심히 한 것’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최근에는 공부하다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안 들 때? 그리고 특히 시험기간에 한 만큼 안 나왔을 때?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만한... 그런.” (...) “일단 내가 했는데 안 나온 거면 크게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그게 열심히 했어도 안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리고 지금 성적이 미래와 직결된다는 말이 많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잘 안 나오면 미래가 안 좋을 거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한 거 같다. 어른들이,

내가 상상하는 건 크게 없는데, 어른들이 이제 말하는 그런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면 평생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 호돌이(18세, 남)

그리고 사실 입시 자체가 내가 아니게 된 사람으로 만드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인터뷰 참가자 레고는 “원치 않는 어디에 몰두를 하면 제 자신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루는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느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이 소외 시키는 거죠.

“제가 지금 입시를 하면서… 일단은 어딘가에 제가 원치 않은 어디에 뭔가를 몰두를 하면 제 자신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만의 아이덴티티나 저를 이루고 있는 뭔가가 사라진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우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레고(19세, 여)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열심히 해야할 것 같고 (...) 막상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 안 남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또 이제 내 앞날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장래에는 또 우리 가족까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고등학교때는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컸던거지.” - 사과(18세, 남)

이런 시험과 경쟁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 관계에서의 오는 거절감과 실패감이나 상처”는 청소년들을 힘들게 합니다.

“선생님이 일단 학교에서 만나본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게 ‘관계’더라고, 우울한 원인 자체가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 관계에서의 거절감,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실패감이나 상처, 트라우마 이렇게 되게 우울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가장 상담을 많이 오는 것도 친구관계지만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해.” - 수경(39세, 여)

“주변에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 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그런게 조금 우울을 만들지 않나 싶어요.” - 홍길동(18세, 여)

3. 청소년들은 왜 우울감을 말 안하나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우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말을 하고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1) “아예 티를 안 내”

우울감을 말하는 대신 청소년들은 “아예 티를 내지 않습니다.” 또, “웬만하면 안 드러내려고 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우울해서 뭐 이런 영향이 나한테 있었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말 못해.” - 임티(17세, 여)

“학교에서는 아예 티를 안 내. 집에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으면 얘기를 안 하고, 가족이랑 말 안해.” - 임서영(17세, 여)

“별로 내 약한 모습을 잘 안 보여주는 거,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살짝 나는 괜찮다 이런 느낌?” - 강민이(17세, 여)

“그냥 안 드러내려고 해도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 보고 눈치를 채긴 하는데 웬만하면 안 드러내려고 하죠.”
- 우진(18세, 남)

“나는 보통 내가 힘들 때 그걸 남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웬만하면 말을 잘 안꺼내. (...) 슬프거나 힘들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참는 것 같아. (...) 이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알게되면 왠지 좀 피곤해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내가 진지한 얘기는 웬만하면 안 꺼내려 해” - 사과(18세, 남)

2) 숨어들기, “겉발속울”

청소년들은 우울감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숨어듭니다. 왜냐면 말을 하는 순간 괜히 가정문제, 가정환경이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괜히 그 가정문제, 가정환경이 이상했고 이런 애로 찍히기 십상이잖아요. 저한테 이상했고, 뭐 정신병자네 뭐네 뒷말 돌 수도 있고... 뒤집어서 말하면 사회가 아직 그걸 받아들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숨어들게 되는 거고.” - 무지개(18세, 여)

“숨겨야 할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경험에 의해서, 주변 시선에 의해서 저는 숨기고 있네요.” - 홍길동(18세, 여)

그러면 우울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숨기고, 티를 내지 않을까요? 그들은 숨기고 "겉밝속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겉밝속울”은 겉으로는 밝은 척 하지만, 속에는 우울하고 말 못 할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터뷰한 것을 보면, “그냥 항상 밝게 웃고 성적 잘 안 나와도 나는 상관없다” 는 식의 표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밝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말 못할 고민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되게 주로 혼자 있고, 자기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쉽게 못 털어놓고, 어떤 걱정이 생기면 그걸 혼자서 계속 끌고 안고 가는 사람” - 새벽(17세, 여)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우울감 하나 느끼지도 않고 행복해 보인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럽기도 한데 사람은 내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겉에서 보면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겉에서 학교에서 모습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 토끼(18세, 여)

“그냥 이미지가 밝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왜냐면 침울한 사람은 별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항상 밝게 웃고 성적 잘 안 나와도 나는 상관 없다 라는 식의 표정을 보이고. 근데 속에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긴 한데…” - 호돌이(18, 남)

“그렇게 그냥 집에서 맘껏 힘들어하고, 밖에 나가면 해맑게 있어야지, 내가 힘들다는 거 티내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 임티(17세, 여)

“딱히 막 학교에서는 드러낸 적이 없어. 그냥 남들 생각하기에 내가 밝은 애니까?
그냥 그러고 최대한 안 드러내려고 하는 편이야.”- 재호(18세, 여)

3) “다시 혼자 수그러져 있고…”

우울해서 몸이 수그러지는 것은 의도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몸이 이미 그렇게 행동 한다”고 해요. 밝아야 한다는 것은 거의 강박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 힘든 거 감춰야 되고, 그냥 항상 밝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그런 인식?” - 새벽(17세, 여)

“그냥 내가 의도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그냥 별로 웃을 일도 아닌데 혼자 웃고, 별로 해맑을 일도 아닌데 해맑게 얘기 하는 경향이 있어.” - 임티(17세, 여)

“그냥 힘들면 혼자 이러고 있다가 친구가 나한테 와서 만약에 말을 건다 그러면 다시 그냥 웃고, 그 친구 다시 떠나면 혼자 다시 수그러져 있고.”
- 새벽(17세, 여)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표정을 좀 의식적으로 밝게 하고 다닌다던가, 그럴 때가 되게 많고 약간 과장해서 기쁨 같은 걸 표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런데 갑자기 힘이 딱 풀려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되게 아, 저 사람은 약간 힘들어 보인다, 생각이 들지.” - 코봉이(17세, 남)

4) 우울은 숨기고, ‘착한 애’ 되기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착한 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함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착한 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울함을 표현하면 ‘나쁜 애’ 일까요?

“전부 다 나를 착한 애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이 동네 사람들, 할머니랑 친한 사람들 있단 말야. 전부 다 날 욕도 안 하는 착한 애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항상 기분이 좋으면서 고정관념에 박혀있어. 인생이 쓰다.” - 언니(19세, 여)

“나는 행복하고, 밝고, 명랑하고, 좋은 이미지여야 해’ 이런 생각의 틀에 갇힌 아이들은 본인이 우울하고 힘들다는 걸 인정을 잘 못하지. 그리고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왜? 나는 좋은 아이여야 되고, 밝고 되게 명랑하고,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그런 아이여야 되니까. 뭐 그런 스스로 (가둔) 틀 같은 것? 그걸 깨지 못해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 수경(39세, 여)

청소년들은 자신의 우울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이 우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는 청소년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대화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부적응자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우울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두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5) 우울을 말하는 것은 ‘갑분싸’

저희는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우울한 사람은 ‘갑분싸’ 시키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울한 걸 왜 얘기를 못 하나”라는 질문에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밝은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 사이에서 우울한 이야기를 꺼내면 소위 말하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갑분싸’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뷰를 하면서 청소년 사회에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만 허용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울한 청소년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우울한 이야기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터뷰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학교, 학생 생각하면 학교에서 늘 밝은 걸 얘기하면서 놀잖아. 모두가 자기 슬픈 이야기만 하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슬프다, 우울하다 얘기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

- 지훈(18세, 남)

“뭔가 이런 얘기, 슬픈 거 말하고 나면 다시 재밌어지기가 힘들잖아.” - 새벽(17세, 여)

“내가 말하는 게 위로 받고 싶어서 말하는 거잖아. 근데 공감을 못 해주게 되면 뭔가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또 뭔가 ‘아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하지.” - 부산(19세, 여)

“놀다가 커버를 못 치는 날이 있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럴 때 막 예민하게 대하면 그때 멀어져. ‘갑자기 애 왜 이래’ 이러고.”

- 임서영(17세, 여)

6) 우울한 건 ‘외톨이’이자 ‘약점’

또한 많은 청소년이 시선의 두려움 때문에 우울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외톨이거나 실패자로 보여 집니다. 인터뷰이들은 “그걸 말하면 나는 외톨이가 될 거야 - 조(18세, 여)”라는 생각에, 또 “못난 애라고 볼까 봐 - 아침(47세, 여)”라는 걱정에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은 우울한 사람이 청소년 사회의 주류집단인 ‘인싸’ 라기보다는 ‘루저’ 같은 이미지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울한 걸 말하는 건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청소년들은 생각합니다.

“이걸 얘기할수록 나에 대한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 어느 순간부터 내 얘기를 하는 게 나의 약점이 되고, 내가 얘기했던 그 약점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 이해선(19세, 여)

인터뷰이들은 우울한 사람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거나 사회 부적응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솔직한 마음은 약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울감이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 청소년 사회에서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울을 말하는 게 교실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 위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일만 해도 ‘야, 너 다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뭐만 하면 ‘야, 너 혼자였는데 괜찮겠어?’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죠.” - 간지왕(18세, 여)

그래서 우울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우울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을 걱정합니다. 한 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재 우울증 걸렸대” 그런 시선으로 보이는 게 싫었어요.”, “정말 내가 힘든 그 인식이 그 사람한테 박히는 게 싫어”, 또 “사연 있는 애”로 찍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라는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나의 한 면이 나,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보입니다.

“또 정말 내가 힘든 그 인식이 그 사람한테 박히는게 싫어. 내가 친구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아 막, ‘이번 친구들이랑 괜찮아?’ 나 그 말이 싫었어요. 내가 친구들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잖아. 내가 그걸 알아도, 그게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들만은 ‘어 왜? 그냥 평범해보이던데.’ 이랬으면 좋겠다는..” - 이해선(19세, 여)

“학교에서 그냥 친구로 봐 줬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있는 애가 아니고, 사연 있는 애로 찍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냐면은 그 친구가 나를 볼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애 저번에 이 말 했었지 이러면서. 애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그건가? 그러면서.”

- 임서영(17세, 여)

4. 청소년은 왜 우울감을 말 못 하나

청소년들은 여러 이유들로 우울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말하지 않는게 마땅하고, 그게 옳바르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1) 우울은 개인의 문제: 내가 혼자 해결할 일인데

왜 이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이들은 우울할 때 남에게 기대어 도움을 받기 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말해봤자 좋은 게 없는 것 같애. 누군가가 나의 우울을 해소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나 혼자 이 우울을 견디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안 말했던 적이 훨씬 많은 것 같고.” - 원재(18세, 남)

“나는 나 혼자 삭히고 지나가는 게 편한 방식이고.” - 새벽(17세, 여)

“저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강해 가지고 남한테 뭔가 기대거나,

아니면 남의 영역에 저가개입하는 것도 싫어하고, 제 영역에 남이 개입하는 것도 둘 다 싫어하거든요.” - 레고(19세, 여)

모두 다른 이유지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를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나는 우울할 자격이 없다.

우울을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하여 말을 안 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우울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우울을 말하지 않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도 안 받는 정신과 치료를 감히 내가?” - 토끼(18세, 여)

자신보다는 부모님이 더 고민할 게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기에 부모님이 더 우울할 것 같다고 토끼는 말했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우울하다고 생각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마땅한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치료에는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어쩌면 토끼는 ‘나는 아직 치료 받을 자격이 없다. 즉, 우울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막... 지속적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어느날 갑자기 이러고, 괜찮아지고. 또 막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이런 식으로 있니까.” - 포치(19세, 여)

또치는 본인의 우울이 지속적인 건 아니니까, 자주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는 우울이라 상담 기관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청소년들은 자신의 우울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담 받을 정도는 아니야” 하며 우울의 자격을 쫓고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우울한 것도 아닌데 내가 우울해도 되는 걸까?”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우울을 억누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3) 진짜 우울은 말하지 못하는 것

우울감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진짜 우울한 사람’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말하는 ‘진짜 우울’은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진짜 우울은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울한 사람이라면 그걸 밖으로 내비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새벽(17세, 여)

“진짜로 우울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거를 게, 그런 거를 올렸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나는 그거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그런 거는 좀 장난이 아닐까. 장난이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울한 사람은 어떠한 sns도 안 할 것 같아. 진짜로 우울하다면.” - 바닐라(18세, 남)

겉으로 티를 안 내는 사람, 사람들에게 우울을 말 안 하는 사람, 우울로 인해

어떠한 sns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우울한 사람이라고 청소년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진짜 우울한 게 아니니까, 진짜 힘들면 말하지 못하는 거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청소년들은 결국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4) 우울을 말하는 것은 “관종”

우울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우울이라면, 반대로 우울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청소년들은 이를 '관종' 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종'은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재가 우울증이 걸리면 개나 소나 다 우울증 걸리냐 이러면서, 아 그냥 우울증 얘기가 나오면 시선이 안 좋은 애기들뿐이야. 재 지금 동정심 받으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 올레아이(17세, 여)

“(sns자해 사진에 대해서) 그냥 그 애들이 관종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애들은 딱히 탓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각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랑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약간 이진 애정결핍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 - 포치(19세, 여)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친구에게 동정심 받으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며 말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sns에 우울을 표출하는 것을 보고 애정결핍증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우울을 말하면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우울을 말한 청소년들이 단순한 관심만을 필요로 했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우울하다, 나를 좀 봐달라” 하는 일종의 응급 신호 같은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우울을 말하지 못하기도 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은 우울을 계속 참고만 있는 걸까요? 저희는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우울에 대해, 우울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반응할까요?

5. 사회적 이해와 시스템: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나?

1) 우울함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회

(1) 우울감을 말했을 때의 반응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인터뷰이들 중에는 우울함에 대해 처음부터 말을 안 한 사람보다, 말해 본 경험에 상처를 받아서 숨기게 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회가 우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줍니다.

“계속 우울하다고 하면 우울감은 쉽게 오기 때문에 나도 같이 우울해지니까 듣기 싫다, 그런 건 좀 있었어요.” - 홍길동(18세, 여)

“개가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닌데 너만 힘든 척해?” 이러는 거야.” - 조(18세, 여)

“나한테 “너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야.” - 느림보(17세, 여)

위 인터뷰 내용처럼 우울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가혹합니다. 이런 식의 반응은 청소년들이 우울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건 네가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어, 선생님한테.”- 조(18세, 여)

“내 방을 보면서 ‘너 악마 썩인 거 같다’ 그런 소리 하고. 막 ‘너 방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 임서영(17세, 여)

“너 그럴 거면 그냥 정신병원에 내가 가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 느림보(17세, 여)

그냥 ‘듣고 싶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배척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악마가 썩인 것 같다’ 거나, ‘정신병원에 가둔다’ 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말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잊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은 조금만 우울해도 ‘나 병원에 가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2) 청소년의 우울감, “사춘기일 뿐”?

청소년기에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은 설명할 게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터뷰이들이 불쾌해했기도 하고, 자신이 이렇게 보일까봐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춘기라는 말에 청소년을 미숙하게 보는 시선이 담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청소년이 될 해도 저건 미완성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같습니다. 뭔가 우리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이 나이 때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사춘기 그때는 원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다, 네가 유별난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네가 힘들어서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느껴지는 거지, 네가 그렇게 유별나게 막 우울증이 있고 네가 심하고 네가 막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너를 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 - 느림보(17세, 여)

“내가 보기엔 너 중2병이다, ‘내가 찾아본 중2병 모습인데, 너랑 닮은 거 같아, 너랑 많이 비슷하다, 넌 이거 보고 완화를 좀 해라.’ 이러면서.”
- 임서영(17세, 여)

“사춘기 그때는 원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다.” 학교에서 이런 말은 흔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교사한테 “고등학생은 원래 힘든 것이 맞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원래 아픈 것이 맞다”고. 그래도 학창시절의 추억들이 항상 기억에 남는다면 묻지도 않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청소년 우울을 아름다운 성장통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한 몫 합니다. 등장하는 청소년들은 하나같이 미숙하고, 작은 것에 쉽게 흔들리고, ‘반항’하는 청소년도 알고 보면 연약하고 본성은 맑고 깨끗한 존재로 나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바라는 청소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2) 학교가 청소년의 우울을 대하는 방식

(1) 학교 내 상담기관, 위클래스에 갔더니

청소년을 미숙하게 생각하는 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은 위클래스가 있지 않냐” 는 말은 반박하기도 지칩니다.

“갑자기 그 친구에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충격적이었고.” - 토끼(18세, 여)

“그거 다 담임선생님들 귀에 들어가. 완벽하게 비밀보장 안 되고 부모님 들한테도 들어가고”. - 조(18세, 여)

“제가 그냥 되게 가족 내에서 불화가 있었는데, 그걸 저의 위클래스 쌤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를 호출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울고 불면서 진짜 부르시지 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계속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일 뒤에 저희 어머니를 학교로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날 엄청 혼났습니다.” - 레고(19세, 여)

“(위클래스가) 약간 보건 선생님 같은 느낌? 밴드 붙여주는 느낌?”

- 호돌이(18세, 남)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위클래스는 악명이 자자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닐까” 라거나 “공부에 집중을 해 봐라” 는 식의 무지한 말은 오히려 혼합니다. 그래서 위클래스 상담이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는 청소년들도 이미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불안은 비밀보장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정신과나 상담시설을

가도 비밀보장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법적인 것을 논하기 전에 상식적으로도 기본입니다. 누가 믿고 비밀을 얘기했을 때 비밀을 지켜주는 것 말입니다. 근데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청소년일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단 위클래스에 가기만 해도 담임교사가 알게 됩니다. 레고의 사례를 보면 마음이 착잡하고요, 울고불고 하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담시설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2) 사실 대로 말하면 안 되는 정서검사

그런데 정서검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확인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한 애가 있는 거야. 이제 학교 측에서는 약간 일단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없애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받게 하고 이번에는 완전 거짓말로 꼭 다 체크를 하고...” - 익선(17세, 여)

“(선생님이) 니들 이거 (정서검사) 너무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뭐 한달 정도 ‘너무 죽고 싶다’ 시험 못 본 거 가지고 그런 거 체크하는 거 아니라고, 니네 이거 위험군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정신과를 가야된다. 정신과가 뭔지 아냐, 정신병원이라고, 아니 뭐라는 거야, 알고 있지” - 익선(17세, 여)

“내 옆의 짝이 체크를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었나봐.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너 진짜 이거 맞냐고 이러면서, 너 그냥 잠깐 그런 생각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와서 이렇게 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 익선(17세, 여)

“음, 그거는 내가 그 정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내가 체크를 한 게 자신의 몸에 상해를 끼친 적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내가 그 때 아빠 때문에 힘들어서 ‘예’라고 체크를 했는데 그 뒤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라고 체크를 했는데 선생님이 상담을 받으라는 거야. 담임쌤이. 그래서 “저 안 받겠다고 체크 했는데요?” 그랬는데 그냥 한번 받아보래. 그래서 선생님 싫어요, 했는데 위클래스 선생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야. 한 번 받아보는 게 어떻냐고.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받게 됐어.” - 올레아이(17세, 여)

정서검사서 사실대로 응답을 하면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재검사가 뭔지 아시나요? 우울 정도가 높게 나온 청소년을 위클래스로 불러 ‘정상’상태로 나오도록 다시 검사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10년 전 얘기 이런 게 아니라, 2019년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검사를 하는 동안 교사가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네 이거 위험 군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정신과를 가야된다.” 이런 말을 검사하기 직전에 교사가 교탁 앞에서 한다거나, 청소년들이 검사를 하는 동안 교사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모니터 화면을 대놓고 본다거나, 그렇게 보다가 청소년이 우울하다고 응답을 하는 거를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안돼” 하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검사를 진행하는 교사가 바로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위클

래스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런 억압 속에서 누가 진짜를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정서검사는 우울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울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골라내기조차 힘듭니다.

(3) 한편, 학교 밖에서는

학교 안의 상담시스템이 이렇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정신과를 가면 된다, 외부 상담기관을 다니면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학교 밖 상담시스템이야말로 청소년차별의 끝을 달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소년이 혼자 못 가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정신과나 상담시설의 비용을 청소년이 감당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상담비가 너무 비싸. 한 번 한 시간 하는 데 6만 5000원. 내가 다니는 데가 사설이야. 그리고 약값도 너무 비싸. 2주치를 받았는데 2만 8000원이 나온 거야.” - 조(18세, 여)

“이번에 꺼는 거의 한... 삼사십만원 들었어. 검사지만 오십만원이었는데. 오십요? 너무 큰 금액이잖아. 우리 학생들이 구하기가.”

- 익선(17세, 여)

그래서 대부분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간 병원에서 청소년은 비청소년들과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상담과 치료가 부모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상태를 검사지를 그 결과를 엄마아빠한테 알려주는데, 그걸 엄마아

빠한테 알려주겠다는 것도 말 안 했고, 결과를 나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은 거야. 개 빠친 거지. 물어보지 않았으면 엄마아빠가 그냥 다음주에 가서 결과를 듣고 왔겠지. 처음 갈 때부터 아예 비밀 보장을 해 달라고 내가 엄청 강조를 했거든.” - 익선(17, 여)

“‘엄마는 친구관계고 아빠는 남자관계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으면 엄마랑 친해져야 될 거 같다’ 이러면서. 내가 엄마랑 친해지기는 싫는데 친구는 많이 사귀고 싶으면 어떡하냐 이랬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또 설득을 하는 거지.” - 익선(17세, 여)

익선의 인터뷰를 보면, 내담자 당사자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는 비밀로 하고 부모에게만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시간을 따로 잡기도 합니다. 이것도 위에서 언급했던 위클래스의 이야기처럼 이 청소년이 얼마나 비밀보장을 강조하고 불안해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 상담의 목적이 보호자와의 관계개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폭력을 겪어 상담시설을 찾아간 청소년에게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으면 엄마랑 친해져야 될 것 같다”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예상은 되는 얘기들입니다. 청소년 우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진짜로 청소년이 안전하다고 여길만한 상담공간은 어찌면 아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내담자는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6. 체념과 존버(존나 버티기): 우울하다고 말 못하는 청소년들의 생존 방식

1) 체념하고 고립되기

청소년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체념과 고립은 처음부터 생긴 감정은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고, 나중에도 이러겠지 라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감정이지요. 제가 인터뷰 했던 사람들은 모두 우울을 말했다 좌절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도움을 못 받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아예 들어줄 존재가 없어서입니다. “항상 이렇지 하고, 항상 이러니까. 이번에도 이러겠지.”, “그냥 계속 이 상태가 쪽 이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한 번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온 우주만큼은 아니어도 내 우주에서만큼은 나 혼자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욱이 혼자 있게 되지요.

2)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기

계속 혼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시야가 굉장히 좁은 생각을 말합니다. 우울한 생각이 계속 어두운 쪽으로만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비우려고 하고, 계속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는게 최선이겠거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뭔가를 더 하거나 다른 걸 찾아야 하죠.

3) 우울감, 게임으로 완벽하게 잊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게임으로 완벽하게 잊으려 하는 것 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휴대폰입니다. 우리는 이 휴대폰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나면 잠시나마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도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시거나 어쩌면 해 보았을 말에는 “핸드폰 좀 그만 봐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이렇게라도 잊으려 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 버티기: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어”

생각을 안 하는 방법으로는 누워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어렵기도 한 방법이죠. 무슨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기도 하고 방에서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오기도 합니다. 습관처럼 “집가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상한 건 집에 가서도 집 가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집이라고 말하는 공간으로써 집도 있지만 편안히 숨을 쉴 수도 있고 내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거나 누워있는다고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 거는 걸 알아요.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기쁘고 기분 좋은 일보다는 우울하고 힘든 일 일수록 더 잘 기억나거든요.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감정이 지나간다는 건 견디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견디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냥 버텨야 하는 거라고, 태풍이 지나가는 건 태풍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태풍이 그냥 훑 치고 지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다들 버티고 있나 봅니다.

위 방법들 또는 각자 다 다른 방법들로 우리는 우울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방법들이 이해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당장 답이 될 수 없고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고 한 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보니 하지 말라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쉽게 말을 건넌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인터뷰 중 우울이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치료할 수 없는 거다 그냥 껴안고 살아가는 거 말고는 나도 답을 모르겠다”고 답했지요. 우울과 지내려는 사람도 존재했지만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 밖에 모르는 방법들로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너무 애쓰며 각자만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저한테 다시 물어본다고 해도 그 친구의 삶에 있어서 그저 잠시 스친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 말 한마디 묻고 또 그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괜찮다고 해도, 이 순간이 끝나기를 바래도,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버티는 행동들이 그저 어떻게든 살아가기를 바래서, 정말 그냥 살아서 또 다시 마주칠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결론: 말 좀 하고 살자, 우울을 말한 사람들의 이야기

1)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애씁니다. 우리 질문이 왜 말 못할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을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한 한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울한 얘기) 많이 했지. 얘기 못 했으면 아마 잘못됐을 걸? 도움을 받았지. 그 당시에는 도움을 줘도 고맙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도움

을 엄청 많이 받은 거지” - 아침(47세, 여)

“난 내가 겪었으니까.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게 중요하지.” - 조(18세, 여)

인터뷰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경청해주길 원합니다.

“그 친구만큼은 나한테 의지할만한 친구인 것 같아.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막 심하게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 정말 들어주고 ‘그럴만 했겠네.’, ‘네가 이상한게 아니라 그냥 네가 당연히 우울하고 힘들만한 상황인거야.’ 라고 얘기 해주는 친구인 것 같아.”

- 올레아이(17세, 여)

그리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나의 이야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을 말했을 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참지 않고 너는 어떻게 할건데?’ 라는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맞는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으로 바라봐주면 우울한 청소년들도 말 한 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특수성일 수 있는데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심리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하거나 명확히 하거나 그 어떤 감정이라도 순수하게 존재해도 된다고 받아들이기는 문화가 아닌 거야. 우리는 인내를 강조하는 문화이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높고, 그렇다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 칭찬도 많이 하는 문화도 아니야. 약간 평온을 지향

하는 문화에 가깝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 은하(33세, 여)

우울하고 어두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우울을 안고 사는 청소년들은 더욱 고립됩니다. 그리고 우울한 청소년들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난 내가 겪었으니까.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지." - 조(18세, 여)

조는 자신의 우울감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외로워서 우울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연구를 하며 '우울해서 더 외로워지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우울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점점 고립되어가고, 우울감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의 우울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하기 전 "나 혼자만 우울한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저 말고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나 혼자만 우울한 걸까?'라고 질문을 한 건 어찌면 우울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워서 우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말 해야겠습니다. 나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말해도 되는구나 해서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청소년의 우울감, ‘청소년기’의 문제로 만들지 말 것

사춘기라서 그렇다,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울함을 말한 청소년들이 흔히 듣는 말입니다. 우울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모여서 쌓이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자체만의 사고 능력이 있고, 또 저희만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저희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 자체를 병리 현상 취급하는 분위기가 만연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 레고(19세, 여)

하지만 레고는 우울이 감기가 아닌 암과 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방치해두면 점점 더 퍼지는 암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느끼는 거다? 누구나 오는 거고, 청소년기에 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 인생의 힘든 시기가 그 때인 거지, 상황은 바뀌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우울한 건 아니잖아.”

- 아침(47세, 여)

우울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누구나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주변의 청소년 혹은 친구가 본인의 우울에 대해 말해준다면 단지 그 사람을 청소년이기 때문으로, 사춘기로 보지 말고 한 번 깊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상담 받고 약 먹었으니 이제 다시 공부해?

“상담 받고 약 먹었으니 이제 다시 공부해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받고 약을 복용 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치료되는 일.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인터뷰이가 말했습니다.

“우울하고 힘들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쉬라고 말해줬던 사람이 나중에는 병원 가는 것과 약을 복용한다는 걸 알고 과거의 나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학업에 미쳐 살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계속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금세 낫는 병이라고 다 나았을 것이라 생각하더라고요.” - 천슬(18세, 여)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게 ‘뚝딱’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울이란 감정은 쉽게 손안에서 통제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존중이 필요하다: 당신은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우울을 경험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같다고요. 저 방법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최선일 때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이가 삼일 동안 밥을 굶은 적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시간에 걸쳐서 인터뷰이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맥락이 다 납득이 가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입니다.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게 정말 너무

복잡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그건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야’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험해 보여도 본인이 선택한 생존전략이 최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너무 애쓰고 있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 너무로 깊고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린 모르는 걸 인정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존중이지 않을까요?

○———— 제4장 사업 성과 및 청소년 평가

- 1. 사업 성과 분석
- 2. 청소년 평가

1. 사업성과 분석

1) 정량적 성과

- 운영기간 및 횟수: 9개월 간 30회차 운영
- 참가 실적: 정원 15명 총 연인원 1,130명 (연구자 540명, 정보제공자 490명)

2) 청소년들의 성장 및 역량 강화의 측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어떠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3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면담은 사업 초기 이루어진 1:1 개별 면담으로 1인당 40분에서 60분간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업 진행 중반에 이루어진 두 번째 면담과 사업 종료 후 이루어진 세 번째 면담은 집단 면담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해당 면담에서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10대 연구소에 참여하며 발견한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래의 성과는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영역 분석과 분류체계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1) 연구 과정을 통한 비판적·성찰적 사고능력 함양

사회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는 미래 역량이다. 청소년들은 10대 연구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성찰적으로 사고하고, 문제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그 이유와 논리를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이 함양되었음을 보였다.

저는 그 제가 발표할 부분이 이제 교실 내 젠더 불평등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되게 학교를 다닐 때 뭔가 그런 가해자였고, 생각해보면, 반에 있는 그런 남성들. 제가 있다가 까게 될, 남성 무리에 저도 속해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뭔가 어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팀들이 그런 분위기나 교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약간 찢리면서 아 나도 그랬겠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들였겠구나 하는 거를 전혀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어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저를 알게 되었던게 좀 겁나 재미있었어요. (마루)

저는 사실 어릴 때 운동을 갔는데, 사범님이 왜라고 질문하는 거는 왜놈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사실은 10살 이후로는 질문을 잘 안 했는데, 10대 연구소 오고나서 생기가 맨날 물어봐요. 왜, 왜, 삼색, 그거 설명해봐요. (웃음) 그러다보니까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왜, 왜, 왜, 이러고 있어서 좀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힘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는데 도움이 되는. (삼색)

학교 다닐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거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신경 쓰이고.. 근데. 10대 연구소 하면서.. 생각이 많아져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입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원)

어 일단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게 다 아니었다는게 다 느껴지고 점점 더 멍청해져가는 느낌인데 근데 그런데 약간 혼란스러운거는 약간 가라앉는 것 같아요. 좀 더. 삶이 침착해지는 것 같고, 약간 어차피 나는 다 알 수 없다 약간 이런 태도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도 괜찮다 이런 네. 그래서 좀 저는 침착해지는 것 같아요. (은별)

(2) 연구를 통한 공존의 기술 습득

한국사회 내의 첨예한 갈등과 혐오 표현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은 함양하는 것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본 활동에 참여하여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와 의견이 다를 경우 그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질적 연구 방법 중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면서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경청하고, 그의 생각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공존의 기술을 습득했다고 청소년들은 말하고 있다.

저는 연구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이 말하는 언행 들에

대해서 화만 내고, 그랬는데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상상하고, 바라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말을 했는지,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양친구)

인터뷰를 하면서, 원래 친하지 않았던, 잘 몰랐던 친구들도 만나가면서, 잘 듣게 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말하기를 더 좋아했던 저인데, 그냥 남의 말도 들어보면서, 방금 삼색이 말한 것처럼, 왜? 뭔가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루)

가장 10대 연구소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인터뷰하는 거였는데, 작년에는 말하는 법?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면, 인터뷰는 진짜 30분에서 1시간을 들어야 하잖아요. 나는 진짜 질문하나 하고, 상대방이 몇 마디를 해도 들어줘야 하는게 진짜 처음에는 힘들었고, 같이 말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막 익숙해지니까. 듣는 것도 약간 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은거예요. (풍)

학교 생활이 달라진 게, 스트레스 받게 한 말들이나,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에 안 들면 뭐지? 스트레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자센터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게, 주위 모든게 다 연구대상으로 보여요. (양친구)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의 키워드 중 하나는 ‘침묵의 교실’이다. 누구도 불평등과 폭력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친한 사람들과만 이야기하는, 침묵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어떻게 한 시간 동안 페미니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 라고 걱정한 사람

들과 막상 이야기하고 나니 서로를 조금 이해한 기분이 들었고,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거른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에게 대해 ‘더 이야기해볼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오리)

(3) 고립에서 협력으로

고립은 현대사회의 화두이자 문제 중 하나이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노인 모두 한국사회에서 고립을 호소하며,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의논할 대상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으로 언급되곤 하는 개인화는 독립적인 개인의 성장을 돕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높은 수준의 고립을 가속화 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을 경험하는 것은 10대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된다. 10대 연구소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곳에서의 만남과 협력을 중요한 성장 경험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 학교에서 약간 여기에서 말하는 주제로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반대를 하거나, 설명을 해서 시작을 하거나, 들어보면 답답하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여기 오면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열린 마음.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마루)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고민 되었던게,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원래 있던 사람들과도 잘 지내가 힘든데,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잘 지낸다? 저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말도 섞기 싫어 가지고, 여기 와서. 너무 분위기가 어색하고, 적응 하는 거에 조바심 났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서로.. 그냥. 한 마디씩 섞고,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괜찮겠다 싶은 느낌을 받아서.. 다가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고

여기 와서.. 제 생각이 되게 편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전에는.. 폐미니즘이나 입시나 혼자 생각만 하게 되니까 남이랑 비교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을 하고,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의견도 틀린 것도 너무 많고,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은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고쳐졌고 (이경)

솔직히 이런 팀워크 처음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조별로 뭐 하는거 많이 하지만, 거의, 거의 독박쓰거나. 너 뭐해, 난 뭐할게. 이런 식으로 하거나 지 뭐 서로 돕는다던지는 아니고. 그냥 다시 보지 말자 이러는데, 지금 여기는 진짜 우리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팀원들을 버리고 갈 수 없는거예요. 진짜 짤하기도 하고, 또 막 웃기도 하고. 어떨때는 내가 안 해도 나 대신 해주겠지. 하는데, 그게 막 눈치 보이고 그런게 아니고 서로 그렇게 막아줄거라는 느낌? (늘보)

(4) 과정을 중심으로한 성취감 획득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과정 중심의 성취감을 경험하는 기회는 극히 드물게 주어진다. 고강도의 경쟁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과를 중심으로 자신과 과업을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는 과정과 시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청소년 참여 연구 활동은 성적이나 생활기록부로 평가되기 보다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기주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점수나 등급으로 좁혀지지 않은 성취감을 경험했다.

여기는 생기부가 없잖아요. 내가 한게 다 점수로 말해지는 게 아니니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고, 그게 뭔가 댓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생각도 들고, 더 잘 하고 싶다. 얼마큼 해야 하는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막 생각하고. (미르)

수행평가랑 비교하면 완전 다르죠. 그건 정말 피곤하고, 끝나도 어휴 끝났는데, 이거, 10대 연구소는 끝났는데 너무 뿌듯한거예요. 점수가 정해져 있을 때는 사실 항상 미달이잖아요. 100점은 정해져있으니까. 그리고 점수라는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될때가 있고,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데, 이걸 아닌거죠. (진)

성취감, 성취감이 있어요. 중간에 도망가지 않았다는거. 솔직히 뭐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게 너무 어려운데, 이걸 도망 안갔다는게 너무 신기하고, 좀 뿌듯해요. 끝까지 했다는게. 근데 팀원들이 있어서 한거 같아요. (루)

(5) 자기주도성 고양

청소년 참여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변화를 회고하는 청소년들의 말에

서 본 활동이 기여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10대 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조금 더 생각의 폭 넓어 졌고, (...) 소극적인 편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왔을 때는 조금.. 적극적이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웠고, 제스처도 다양하게 늘은 것 같고 (진)

이 하자 센터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고, 어땠냐, (했더니) 다른 사람이랑 이런 말을 처음 했대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래요. 근데 나는 듣고만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은 건 처음 이어서. 그런.. 처음이었다 말하니까. 싱숭생숭 했어요. 되게... 처음으로 뭔가 역할을 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뭔가 했구나 (루)

좀.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깊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해 졌어요. 이렇게 막 집에서 아니라고 말하게 되고, 학교에서의 저의 모습도 되게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되게 손을 들거나 그런 거를 잘 안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하는 게 어려웠는데 잘 하게 되었어요 (양친구)

제가 원하는 거를 알고, 배우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거기도 하고. 되게 제가 달라졌던게 요즘에는 좀 마음에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전에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서. 달라진 것 같고 (늘보)

2. 청소년 평가 - 10대 연구소 1년을 돌아보며

10대 연구소를 돌아보며

작성자: 시원 (청소년 우울감 연구팀)

나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나를 표현하는 것에 서툴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드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 또 나는 혼자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그런 내가 10대 연구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모두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것. 여기에는 미숙하다며 우리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어른도, 주류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10대 연구소 활동을 시작하기 전, 난 나름 행복하고 그래도 괜찮은 10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동기가 아닌 외부 요인들에 의해 미래 설계와 동기 부여를 강요받는다느 느낌이 들 때마다 답답하고 불안했다. 큰 흐름에 자연스럽게 휩쓸려가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다가도 자꾸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나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10대 연구소를 시작한 건 ‘입시에 찌든 뻘한 고등학생’이 되지 않기 위한 나의 발버둥 같은 것이었던 것 같다. 나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무너지는 것이 싫었다.

10대 연구소에서 내가 연구한 주제는 청소년의 우울감에 대한 것이었다.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을 못 할까?’)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였다. 불안이나 우울은 오랫동안 집요하게 나를 쫓아다닌 문제였다. 연구를 하며 어쩌면 내가 속한 집단을 연구한다는 것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픈 곳을 파헤치고, 피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주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청소년의 우울을 연구하며 내 우울했던 기억들을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인터뷰이들이 자신의 우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읽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우울에 대해 고민했고 힘들어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팀원들과 우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자신의 우울을 말하지 못한다는 결과에 다다르며 우울에 대한 내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나는 외로워서 우울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연구를 하며 우울해서 외로워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우울을 힘들어했던 것은 그 무게를 누군가와 나눌 수 없어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청소년들은 우울하다고 말하지 못할까? 우리의 주제 자체가 우울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울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나는 10대 연구소를 통해 많은 걸 얻은 것 같다. 10대 연구소 연구원들과 다 같이 울고 웃으며 연구했던 1년 동안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고, 이 멋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털어놓았던 문제에 대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숨기려고 노력했던 감정과 생각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연구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그리고 이상하게만 느껴졌던 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내게는 소중하다.

우리 푸노푸노 팀원들에게, 그리고 10대연구소 연구원들 모두에게 정말 고맙고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10대 연구소 1년 후기

작성자: 늘보 (청소년 우울감 연구팀)

열 달간의 길지만 짧은 프로그램이 끝나간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밥을 먹은 게 얼마 전 일 같은데, 학교가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모두가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나 혼자서만 거리를 두고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인사만 나뉘도 어색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버렸다.

10대 연구소에서는 나를 비롯한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연구했다. 연구원들과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우리는 비슷한 점이 꽤 많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이지만, 10대라는 공통점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위로가 되기도 했다.

함께 연구하고 발표를 준비했던 날들이 모두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던 순간들이 아닐까 싶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부터, 개인적이고 조심스러운 내용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하는 시간이 좋았다.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나를 믿고 말해준 친구들도 고맙웠다. 아쉽게도 나는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본 적이 별로 없다.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직은 힘든 일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기도 하다. 그래도 늘 기다려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용기 내고 있다.

꽤나 오래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전에 ‘나 연구하기’라는 주제로 다 같이 글을 쓴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글을 쓰지 못했다. 글을 꼭 쓰고 싶었고 뒤쳐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한 글자도 못 쓰고 마쳤다. 쓰고 싶었던 내용이

너무 많았던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나는 나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동안 지금의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없었다. 언제나 미래의 나를 걱정하며 현재의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었다.

몇 달이 지난 후, 또다시 글을 쓰는 날이 있었다. 그날 나는 많은 내용을 글에 담았다. 급한 마음에 황설수설한 감이 있었지만, 글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큰 발전이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었다. 아직 아무에게도 글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군가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나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는 게 두렵고,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도 많이 어렵다. 그렇지만 조만간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굳이 바뀔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뀌고 싶다.

10대 연구소 1년 돌아보기

작성자: 풍 (학원 경험 연구팀)

10대 연구소 리뷰를 하기 위해 노트북을 켜고 초콜릿을 먹으며 지난 활동들을 돌아봤다. 내가 10대 연구소를 하게 된 이유부터 서밋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모두 기억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

내가 10대 연구소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참으로 간단했다. 오디세이를 마치고 일반고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 했던 것 이다. 누가 상처 받던지 상관없다는 폭력적인 말하기가 어찌나 싫던지, 또 당사자인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태도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웠는지 모른다. 하자 특유의 말하기 분위기가. 생기와 대화를 하며 3개의 주제를 들었다. 학원 문제를 주제로 한 팀과, 페미니스트, 우울을 주제로 한 팀이 있었다. 나는 마침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이다. 나의 친구들은 학원에 사로잡혀 맨날 피곤한 눈으로 학교에서 보는데 얼마나 학원이 문제길래 하는 궁금함이 나의 선택을 이끌었다. 아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팀이 정해지고 나는 처음 팀원들을 만났다. 다정과 미르, 줄리 였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아직도 생생하다. 팀원들이 나를 인터뷰하면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질문에 대답하는 동시에 3명을 관찰했다. 그리고 “음~ 되게 괜찮은 팀이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10대 연구소에 시작을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있었다. 나만 너무 어색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10대 연구소 활동 중에 가장 기억나는 점 Best 3를 뽑자면 나는 처음으로 소그룹 대화를 뽑을 것이다. 둘이서 대화하면서 여럿이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점을 볼 수 있기에 좋았다. 소그룹 대화가 10대 연구소에서 어색하던 나를 도와줬다. 다음 연도에 들어올 3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이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팀끼리 작업을 하면서 다른 팀의 친구들과 말할 기회가 줄어들어 아쉬웠다. 또 학원팀은 ‘건강이’ 라는 팀명을 가지게 되고 3인 팀이 되었다. 다른 팀들보다 인원이 적고, 3명이 돌아가며 아파서 완전체로 모이는 날은 기적과도 같았다. 줄리가 팀을 이끄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좀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우리 팀에 비해 다른 팀은 척척 진행되가는 것이 보여 조금 부러웠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속도로 잘 하고 있다고 계속 되뇌었다. 다정이 오늘 한 것이 없다고 한숨을 쉴 때 솔직히 나도 막막했었다. 서밋 발표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건강이’ 팀은 비록 시작은 느렸을지라도 끝에 추진력은 상당했다. 우리는 서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자료를 정리했다. 다정은 인터뷰 자료를 정리하고, 미르는 자료를 해석하고 나는 PPT를 만들었다. 한 명의 일손이 아쉬웠던 터라 서로 불평도 없이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우리 팀이 고마웠다.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낯설었고 무언가 실수한 것이 있을까 봐 불안하기도 했다. 발표 전날은 밤늦게 보이스트록을 하며 대본을 마무리했다. 회의 중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우리 아프지만 말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내일 보자.” 였다. 역시 건강이 팀 다운 마무리였다.

서밋의 개막 커튼이 올라가고 여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10대 연구소는 107호에 모여 발표 리허설을 준비했다. 우리 팀 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잠을 못 잔지 피곤함이 얼굴에 드리웠다. 리허설 시간이 다가오고 무대에 오르니 무대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과 관객석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갑자기 긴장감이 온몸에 퍼졌다. 리허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쓰러져 잠들었다. 역시 시간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았다. 이제는 한 달도, 며칠도 아닌 몇 시간이 남았다. 근데 이상하게 어제 보다 떨리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이제 마무리라는 생각이 떨림을 잊게 해줬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팀이었다. 시작이라는 부담감이 괜히 실수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다정과 미르는 실전파였다. 여유롭게 실수 없이 무대를 마쳤다. 막상 리뷰를 쓰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서밋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생하지만 발표 당일 발표하는 모습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세 팀 모두 무사히 마무리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10대 연구소 1년 평가

작성자: 이경 (10대 페미니스트 연구팀)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사실 싫어하는 걸 넘어서 두려워한다. 새 학년이 될 때 마다 바뀌는 반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장 못 하는 것들 중 하나였고, 10대 연구소를 신청할 때는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의 시기였다. 오리가 처음에 나에게 10대 연구소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년에 새로운 반에 적응하는 것도 벅찬데 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라고?’였다. 처음에는 당연히 대충 거절할 생각이었다. 심지어 신청해놓고 안 한다고 반복까지 했었다. 근데 또 조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했던 이유가, 나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왕이면 마음 맞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싶었다.

첫날 엄청 긴장한 상태로 함께 만든 점심을 굳은 자세로 먹고 있었다. 유일하게 아는 오리랑도 떨어져 앉아서 이도 저도 못하고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나도 거기에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했다! 모르는 사람과 전화로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던 나였는데, 이 모든 일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다는 것이 신기했다. 하자센터여서 그랬을까? 아무튼 시작이 좋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10대 연구소는 정말 생각보다 좋았다. 일주일간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굴렸던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곳이었고(그 대신 여기서는 머리를 굴려야 했지만), 어느 무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하면 어쩌하나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친해졌고, 가족 얘기, 입시 얘기 같은 학교의 친구들에게는 못했던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정도로 내가 많이 변했다는 것에

놀랐다. 이것이 10대 연구소를 하면서 나에게 생긴 가장 크고, 또 가장 좋은 변화였다.

내년에도 같은 얼굴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울 뿐이다. 언젠가 모두 다 같이 하자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마라탕 먹으러 가기!

10대 연구소 1년을 돌아보며

작성자: 마루 (10대 페미니스트 연구팀)

지금, 18년 동안 나를 두툼히 감싸고 있던 껍질은 성한 데 없이 금이 가 있다. 내게 껍질이 있다는 사실조차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알 것 같다. 나는 나를 숨기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내 피부를 이루는 딱딱한 껍질 조각들을 애써 외면해 왔음을. 그리고 아직 대면하지 못한 껍질들이 보이지 않는 내 몸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도.

10대 연구소가 내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이유는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이 10대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이다. 20대가 될 마음의 준비가 요만큼도 되지 않았던 나는, 언젠가 나의 10대를 우선 깊이 있게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 내게 10대 연구소는 그 무엇보다도 면밀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연구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맞닥드리게 된 나의 모습들은 무지 낮설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나의 내면과 마주하는 일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일이었다.

나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다. 나를 정체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청소년, 학생'이었다. 청소년, 학생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배제를 생각할 때, 그들은 약자였으므로 나 또한 약자였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른과의 대화에서 특히 그랬다. 그러나 연구를 하면서,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는 강자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폭력적인 권력자, 가해자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사, 어른과의 관계에서는 약자, 피해자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실에서, 무리에서 나는 군림했다.

초등학교 시절의 나는 내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 학급의 일들을 멋대로 결정했고, 약하고 놀림받는 아이들을 은근히 괴롭혔다. 또래 남자 무리에서는 끊임없는 배제와 차별을 생산했다.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심할

정도로 내 눈치를 봐야 했다. 중·고등학교 때 나는 오직 조직의 목적 달성만을 목표로 삼아 달리며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비민주적이고 심지어 엘리트중심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떳떳하게 답습했다. 또한 이 모든 시간 동안 집에서의 나는 막내라는 이유로 누나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기고 엄마의 아픔을 외면하는 등 가부장제 체제가 공고히 자리잡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일부 어른들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결코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비난과 조롱에 대항하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징계 절차에 맞서면서, 반인권적인 일상의 말과 행동들에 문제를 제기해 갈등을 빚으면서도 나는 별로 아픔을 느끼지 않았었다.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타인의 평가 따위는 개의치 않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 여기며 애써 외면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울면 안 됐고 말싸움도 멈추면 안 됐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나를 보며 나는 나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상처를 단지 덮어두고 있던 것이었다.

갑자기 집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났던 것도, 주위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대했던 것도, 문득 줄맞춰 놓여있는 책상과 의자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교실이 끔찍하게 느껴져 혼자 울면서 교실을 나갔던 것도 모두 내 안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창외 서밋 공연을 봤을 때도 그랬거니와, 가끔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복받쳐오름과 서글픔에 휩쓸리곤 했는데, 그 감정들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대면하는 것이었다. 꼭 나의 이야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너와 나의 아픔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치유하고 치유받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10대 연구소는 내게 바로 그런 존재였다. 기꺼이 ‘우리’가 되어 곁을 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미세한 감각을 손끝으로나마 인지한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공을 들여 했던 연구의 과정(인터뷰, 녹취, 코딩, 발표)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귀중하고 값진 것임은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누군가 내게 “그래서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며 얻은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기껏해야 나를 조금 더 알게된 것 뿐이지만, 그것이 ‘기껏해야’라는 말이 붙을 만큼 가볍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생에 있어 결코 멈춰서는 안 될 필수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10대 연구소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를 이루는, 어쩌면 ‘나’ 그 자체일지도 모르는 이 괴기하고 바삭한 껍질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나는 피부에 어색하게 묻어나는 껍질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들춰내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남은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짧다면 짧았던 열아홉의 한 해는 최초로 껍질을 감각한 날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10대 연구소 1년 리뷰

작성자: 오리 (10대 페미니스트 연구팀)

벌써 11월이다. 2019년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2019년, 나의 열여덟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 중 하나는 10대 연구소였다. 10대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들, 연구의 과정, 함께 겪은 일들, 그리고 하자센터라는 공간과 그곳의 사람들은 올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처음 10대 연구소를 접했을 때, 나를 사로잡은 문구는 ‘말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었다. ‘말하는 방법’. 사실 나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무서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잘못 전달되지는 않을까? 이것도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한 생각은 아닐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생각보다 걱정이 많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특히나 의견이 부딪히곤 하던 인권이나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두리몽실 넘어가거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었다.

그렇게 10대 연구소에 들어와 ‘10대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는 것’에 관한 연구를 하며, 나는 페미니즘에 반감을 보인, 혹은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야 했다. 내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고개 끄덕이는 일은 나에게 무척 새로웠다. 그리고 ‘어떻게 한 시간 동안 페미니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하고 걱정했던 사람들과 막상 이야기하고 나니 서로를 조금 이해한 기분이 들었고,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으며 앞으로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표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이야기를 잘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다. 나는 여전히 가끔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고민하고, 소수의 사람이 편안하고, 내가 한 말을 후회하기도 한다. 쿼어

퍼레이드 사진을 올릴까 말까 망설이던 나는 여전히 내 SNS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네 글자가 너무 커 보인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10대 연구소 내에서도 나의 부족한 면이 느껴질 때마다 눈치를 보고 걱정을 했다.

그럴 때면 초반에 생기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서로를 판단할지, 동료로 함께 갈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 나는 그 말을 우울 연구팀을 보며 실감했다. 나의 기복에 따라 기여도가 낮다고 생각되면 위축되던 나에게 서로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너무도 당연하게 이해하고 복돋는 모습은 너무 새로웠고 소중했다. 그리고 우리 팀 안에서도 다른 팀원이 나와 같은 걱정을 하거나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에 ‘우리 신뢰가 이정도야?’라고 장난치는 우리를 발견했을 때, 나는 조금 안정감을 느꼈다.

10대 연구소에는 비슷하고도 다른 아주 다양한 연구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연구소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를 동료로 생각하는 마음 덕분인 것 같다. ‘동료’라는 말이 너무 좋다. 1년 동안 함께한 17명의 동료들을, 앞으로도 자주 마주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동료’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 제5장 정책제언

—— 1. 정책제언

—— 2. 기대효과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 의제참여 및 권한 강화는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이며, 청소년 권한을 강화하고 청소년 중심 정책을 모색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세계에서 주목(미 UCLA YPAR Hub 등)받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기술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 연구는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한 청소년 미래역량을 증진하고 주체로서 청소년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유의미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사업에서 청소년 참여 연구의 의미와 성과가 확인되는 바, 더 많은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역량을 함양하고, 정책 주체로 권한을 강화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탐색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또래와 협력하는 장으로서 청소년 참여 연구소를 확산·보급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1) 인력 증원

본 사업은 기획, 교육, 연구 분야를 총망라하는 고강도의 입력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올해 책임 운영자(교육인류학 박사)와 프로젝트 계약직 강사(인류학 석사)가 투입되어 매주 15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정리·관리하고, 행정 과정을 지원하는 인력 증원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당해연도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고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여 타 기관으로의 확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운영인력양성 및 지원 없이는 확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인력 양성 과정 운영

청소년 참여 연구라는 특수성에 기반할 때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력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참여 연구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역량이 요구된다. (1) 연구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의 주제와 방향, 맥락을 이해하는 연구자로서 역량, (2) 연구 과정을 가르칠 수 있고, 초심자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로서 역량, (3) 청소년과 교감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로서 역량, (4) 프로그램의 일정과 목표에 맞는 운영, 홍보 하는 기획자와 행정가로서 역량이다.

3. 기대효과

1) 참여 청소년들은 연구 활동을 통해 리더십, 비판적 사고, 쓰기 및 말하기, 의사 결정, 권익 옹호, 의사소통, 일정 관리, 회의 퍼실리테이션, 갈등 해결, 팀 워크, 연구 방법 등 다양한 미래역량기술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

2) 10대 당사자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 결과와 기초자료 축적을 통해 비청소년 관점 중심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을 파악한 정책 대안 모색에 기여

3) 비청소년 운영자 양성 커리큘럼 개발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서 청소년 참여 연구의 확산과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남선, 김만희(2000). 참여연구법을 통한 청소년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A Study on Diagnosing and Solving Youth Problems by Participatory Research),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0(1), 135-160.

김현경(2015). “청소년 참여실행연구(YPAR)의 사회과 수업 적용의 실제”, *사회과교육*, 54(3), 87-103.

남채봉(2013).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가 다문화 시대 비판 시민 교육에 지니는 의의, *시민교육연구*, 45(2), 31-65.

Anyon, Y., & Sandra, N. (2003), *Youth Empowerment: the contribution and challenges of Youth-Led Research in a Hirng-Poverty, Urban Community*, Stanfo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pen Archive.

Maglajli, R.A, & Tiffany, J. S. (2006).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with Youth in Bosnia and Herzegovina.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4(1-2), 163-181.

Hall, Budd.(1992). From Margins to Center? The Development and Purpose of Participatory Research. *American Sociologist*, 23(4), 15-28.

Public Health Institute Network for a Healthy California (2012),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 Review of the Literatur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Report 2017-2018. 출처: www.weforum.org

○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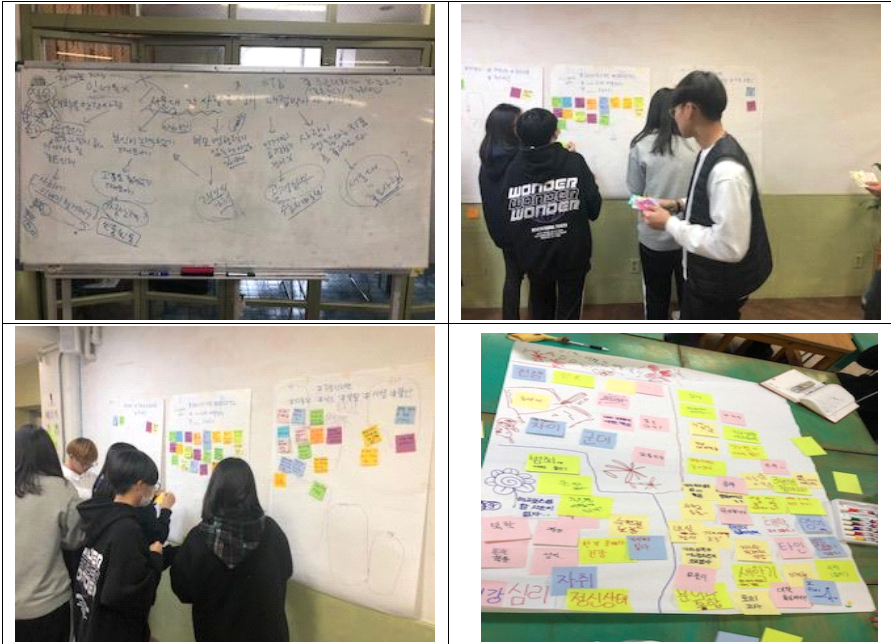
부록

1. 활동사진

1) 1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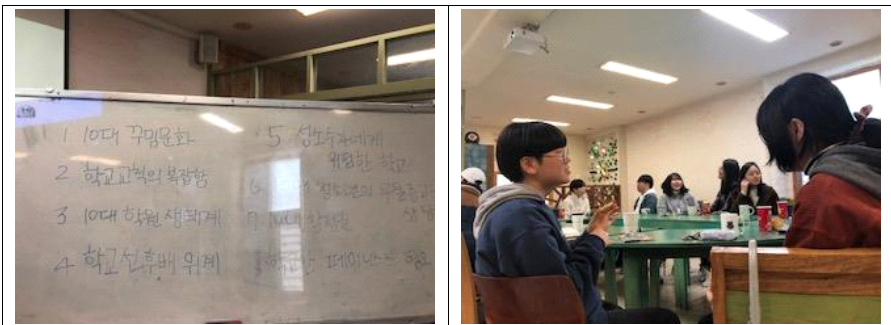
1쿼터에서는 연구원들 서로 멤버십을 구성하고 브레밍 스토밍과 토론을 통해 연구주제를 탐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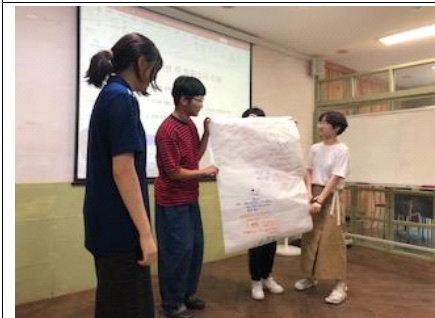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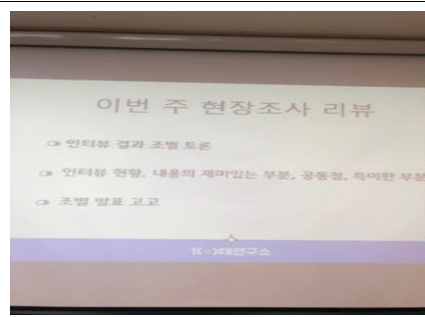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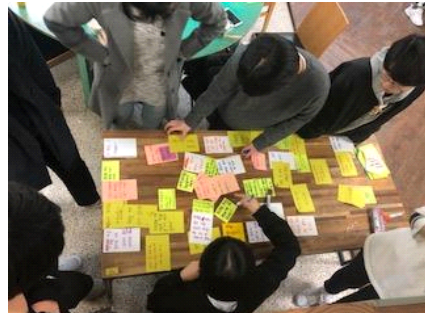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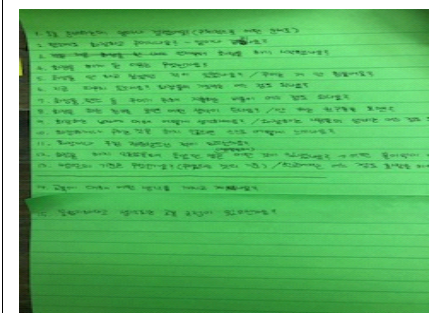




2) 2쿼터

2쿼터는 선정한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과정을 설계하고 연구방법을 학습한다.





3) 3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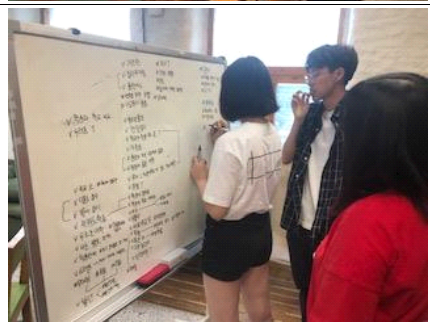
3쿼터는 구성된 인터뷰질문과 설문지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4) 4쿼터

4쿼터는 수집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 및 발표 내용을 구상하고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ABSTRACT

Report on the research project of the teenager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is a youth participation-oriented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project in which teenagers investigate the youth directly and create social knowled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youth. It aims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youth as a subject in the youth-oriented policy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a practical model for activities where the youth participate.

The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of the youth are the major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t is grabbing the attention from the world (US UCLA YPAR Hub, etc.) as a major way to explore the youth-oriented policy. However, such an approach is rare in Korea.

The competencies to identify problems by themselves, learn something actively and solve complex problems are regarded as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the future gener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research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youth can be a significant way to improve the youth's competencies such as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nd strengthen the status of the youth as the subject.

The youth research institute has been run every Saturday from Feb. to Nov. 2019 targeting 15 youth researchers aged

between 15 and 19 who are interested in problems about themselves. The researchers identified research subject about the life of the youth, learned how to conduct a study, conducted on-site survey about the peer youth at the team level, analysed the data and announced the research outcome. The research subjects for 2019 were three: 1) Ecosystem composed of anxiety: Why do we go to private institutes everyday? 2) Why can't the youth tell that they are depressed?: I am not qualified. 3) Living as a teenage feminist: lost conversation and forced neutrality.

The participating youth could nurture their competencies for the future such as critical and retrospective thinking, coexistence of listening carefully and understanding, competencies of cooperative decision making and teamwork based decision making and self-directed attitude, and experience empowerment of the youth.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overcome limitations of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non-youth and explore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specific context of the youth life by utilizing research outcome that reflects the views and voices of the teenagers and accumulating basic data.

key words: youth, participate, competencies, youth-led project.

연구보고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10대연구소
연구사업운영보고**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계문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8-89-7816-917-2



연구보고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